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전면지층공간” 의 요소와 연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ments and Connections
of “Frontground space”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희원

“전면지층공간” 의 요소와 연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ments and Connections of “Frontground space”

지도교수 김 광 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희원

이희원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원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원 _____

[국 문 초 록]

“전면지층공간”의 요소와 연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이 희 원
지도교수 김 광 현

건축물은 도시로부터 경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 경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도시와 연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건물의 저층부는 건축과 도시의 경계이자 동시에 이를 매개하는 접점으로서 도시로부터 최초의 물리적 경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도시와 건축의 매개공간으로서 저층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가로와 저층부의 통합적인 접근이 아니라 외벽을 기준으로 한 외부 공간측면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건축의 매개공간으로서 가로에서 건물의 저층부에 이르는 영역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또 다른 경계를 만들며 평면적인 접근에 그친다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경계를 외벽에서 내부공간에까지 확장하여 “전면지층공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토대로 하여 전면지층공간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내·외부의 연결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의 현대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성 요소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범위를 포함하여 연속적인 공간의 관점에서 도시의 속성을 수용하는 공간요소의 구성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도시의 다양한 상황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행위 역시 전면지층공간을 구성하는 비 물리적인 요소이다. 물리적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전면지층공간의 다양한 연결방식은 이러한 요소에 의해 투명한 경계, 다층적 경계,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와 건축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구성방식에 의해 형성되는데 두 속성이 겹쳐지는 중간영역이 내부로 확장됨에 따라 그 경

계를 확장시키는 다양한 매개물에 의해 가변적으로 설정된다. 무엇보다 공간의 작동 원리로서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공간의 활용에 따라 재조직되는 평면에 의해 중간영역의 확장범위는 재인식된다.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도시의 속성을 염두한 건축공간의 계획에 의해 통합적으로 구성될 때 전면지층공간은 가로와 구분되는 내부성을 갖는 공간이자, 유연한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에 성격을 부여하는 공공영역으로의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에 대한 접근이 단일 건물을 넘어서 도시로 확장될 때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람들의 다양한 점유를 통해 활성화됨으로써 진정한 도시공간에서의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전면공간, 지층공간, 전면지층공간, 연결, 도시-건축

학 번 : 2013-20571

목차

국문초록	ii
목 차	iv
그림목차	vi
표 목 차	viii

1. 서론	00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01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003
1.3. 연구흐름도	005
2. “전면지층공간” 과 도시-건축	006
2.1 전면지층공간의 정의	007
2.1.1 기존 논의 확장의 필요성	007
(1) 도시와 건축의 인식변화	007
(2) 도시-건축의 물리적 경계부에 대한 논의	011
2.1.2 도시와 건축의 매개 공간	012
2.1.3 중간영역의 확장	014
2.1.4 용어 정리	020
2.2. 도시-건축 연결방식의 다양화	022
2.3. 도시공간에서 전면지층공간의 양상	033
3. “전면지층공간” 의 구성요소	037
3.1 물리적 요인	038

3.2 비-물리적 요인	044
4. ‘전면지층공간’ 의 연결방식	047
4.1 투명한 경계를 통한 연결	048
4.1.1 외부를 연상시키는 내부공간 구성	049
4.1.2 근접성에 의한 내부 활동의 투과	052
4.1.3 가로와의 연결	056
4.2 다중적 경계를 통한 연결	059
4.2.1 연속적인 감각을 형성하는 동일한 재료 사용	059
4.2.2 교차 공간의 삽입	063
4.2.3 지형화	067
4.3 프로그램을 통한 연결	071
4.3.1 외적인 속성을 수용하는 내부공간 구성	071
4.3.2 내부의 속성을 보조하는 외부공간 구성	074
4.4 소결	079
5. ‘전면지층공간’ 의 의미	081
5.1 내부공간의 활용에 의해 재인식되는 경계	082
5.2 내부의 형성원리에 따른 통합적 구성 공간	085
5.3 공공성을 고려한 내외부의 연계	087
6. 결론	093
참 고 문 헌	96
ABSTRACT	99

그림목차

[그림 2-1] 도시공간의 사유화, TIRANDO LA ONDA, '1:1 SCALE'	008
[그림 2-2] Street-in-the-Air, 1952/ Amsterdam Orphanage,1960	009
[그림 2-3] Bernard Tschumi, Parc de la Villette, 1998	010
[그림 2-4] 두칼레 광장과 바제바노 성당 배치	012
[그림 2-5] Aldo van Eyck, Before and after image of playground on city sidewalk, Van Boetzelaerstraat, Staatsliedenbuurt, Amsterdam-Oudwest	015
[그림 2-6] Mark Reigelman: Stair Squares, 2008	018
[그림 2-7] 세종문화회관 전면공간의 공유	018
[그림 2-8] 전면공간의 범위	020
[그림 2-9] '전면지층공간'의 범위	020
[그림 2-10] Ford foundation	023
[그림 2-11] 후쿠오카은행 단면도, 외부공간의 활용	024
[그림 2-12] Seagram Building plaza, 1958	025
[그림 2-13] Pompidou senter competition entry	026
[그림 2-14] 내부 바닥의 확장	026
[그림 2-15] HSBC은행 저층부의 도시적 속성	027
[그림 2-16] 도로와의 결합, Kunsthal	028
[그림 2-17] 가로로 연장되어 깊이 있는 전면 지층공간이 형성됨	028
[그림 2-18] 다양한 행위의 중첩	028
[그림 2-19] Yokohama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내부 바닥, 천장, 벽의 통합	029
[그림 2-20] 인프라와 건물의 결합	029
[그림 2-21] APPLE STORE, Shanghai, 2010	029
[그림 2-22] Louvre museum, 1988	030
[그림 2-23] 재료에 의한 내외부의 중첩 Sofitel Hotel	030
[그림 2-24] 내부공간을 압축한 가로 대응 공간	033
[그림 2-25] 내·외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	034
[그림 2-26] 내부 상품-외부 행위자 간의 시각적 연결	034
[그림 2-27] 내부의 물리적 경계 제거	035
[그림 2-28] 내부 활동의 확장	035
[그림 3-1] 저층부 계획에 따른 외부공간의 형성	040
[그림 3-2] Daegu Gosan Public Library Competition, 3 rd Prize	041
[그림 3-3] 유리면에 의한 주변 환경의 관통	042
[그림 3-4] 유리벽에 의한 저층부의 개방성, Cartier Foundation	042
[그림 3-10] 탈 중심적 배치를 통한 근접 영역의 일 방향적 운동	044

[그림 4-1] 투명성에 의한 중간영역의 연결	048
[그림 4-2] 내부공간의 외부화	050
[그림 4-3] 내부로 통과하는 시선/ 외부환경을 연상케 하는 내부공간	051
[그림 4-4]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매개	053
[그림 4-5] 공연장의 외부 확장 개념/ 환경으로의 용화 / 외부공간의 투과	053
[그림 4-6] 자율적인 배치와 전시실의 개별 연결/Towada art center	054
[그림 4-7]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	054
[그림 4-8] 유리를 통한 내부공간의 투과, Hotel Lucerne	055
[그림 4-9] 쇼룸/리프트에 의한 내부의 구성	056
[그림 4-10] 가로와 연결되는 수직 동선	057
[그림 4-11] 내·외부의 연속성에 의한 공간의 통합	058
[그림 4-12] 재료를 통한 연속된 영역의 인식	059
[그림 4-13] 바닥의 연속성 및 영역의 가시화	060
[그림 4-14] 동일한 바닥재 사용	061
[그림 4-15] 가로에서 건물 내부에까지 연속되는 바닥면	061
[그림 4-16] 마당 연장/ 바닥과 천장면의 결합/ 내부바닥으로의 연장	062
[그림 4-17] 빛을 통한 연결	063
[그림 4-18] 내부공간과 연계된 외부공간 구성	064
[그림 4-19] 내부로의 단계적 진입	064
[그림 4-20] 내외부공간의 연계	065
[그림 4-21] Musashino Art University Museum & Library 개념도	065
[그림 4-22] 동일 구조에 의한 연속성	066
[그림 4-23] 유리입면에 의한 내·외부 경계의 교란	066
[그림 4-24] 대지의 형상에 의한 가로형태의 건물계획	067
[그림 4-25] 이동의 흐름을 만드는 공간 구성	068
[그림 4-26] Danish martitime museum	069
[그림 4-27] 지면 아래에서 브릿지를 활용한 공간 활용, 단면도	069
[그림 4-28] 새로운 지형에 의한 내·외부의 관계	070
[그림 4-29] 도시적 속성의 내부화	071
[그림 4-30] 마켓과 주거의 결합	071
[그림 4-31] 저층부의 공적 프로그램과 업무공간의 병치	072
[그림 4-32] 상부메스와 하부공간의 대조	073
[그림 4-33] 내·외부 감각의 교란	074
[그림 4-34] 공연공간으로 활용	076
[그림 4-35] 도시바닥의 형성, 내부 홀, 파랑-사적영역/빨강-공적영역/회색-접점	076
[그림 4-36] 두 레벨을 연결하는 입구공간	076
[그림 4-37] Ground event	077
[그림 4-38] 하부 전시공간에 의해 형성된 지형화된 외부마당	077
[그림 4-39] Media Facade Event	077
[그림 4-40] 도시 가로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입체적 가로의 형성	078

[그림 5-1] 가변적인 벽과 다양한 공간 활용, 경계에서의 양상	082
[그림 5-2]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이 가능한 가변적인 평면	083
[그림 5-3] 외부에서의 변화	083
[그림 5-4] 외부화된 내부공간	084
[그림 5-5] musashino 도서관의 통합적인 구조	085
[그림 5-6] 상부층의 일부로서 쇼룸/리프트	086
[그림 5-7] 도시의 바닥으로 확장되는 전면지층공간	089
[그림 5-8]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내부 아트리움	089
[그림 5-9] Public Space Teatro La Lira, 설계 전 대지 상황(상), 후(하)	090
[그림 5-10] 재건축 전/ 가로와 연계된 외부공간 형성	091
[그림 5-11] 공적영역으로의 활용	091
[그림 5-12] Caixa Forum 컨버전 전, 후	091

표 목 차

[표 1-1] 분석 대상	003
[표 1-2] 연구의 흐름도	005
[표 2-1] 전면 지층공간의 범위 확장 양상	031
[표 5-1] Figure&Ground 관계 변화	087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3. 연구 흐름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과 도시가 만나는 실질적인 접점으로서 최초의 경계를 형성하는 건물의 지층 공간은 정보·기술 사회로의 발전과 더불어 공/사의 경계가 유연해 짐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시에서의 생활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외부로 확장됨에 따라 건축은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물리적 경계를 약화하며 그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의 경계, 동시에 이를 매개하는 접점으로서 저층부는 도시로부터 최초의 물리적 경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건물 전반에 대한 현대 건축의 흐름의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저층부에 집중하여 그 매개방식을 다룬 논의는 많지 않다. 건물이 배치와 동시에 갖게 되는 외부와의 관계를 다룬 논의는 전면공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는 가로와 연속선상에서 건물과의 연결을 염두한 공간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 건축과 도시가 만나는 경계로서 전면 공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도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이는 건물의 외벽을 경계로 외부공간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 도시에서 주요한 교류의 장으

로 재조명 받는 가로공간의 환경에 대해 대지의 경계선을 기점으로 외부 공간의 측면만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공간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설물의 현황이나 가로의 폭, 입면의 형태, 녹지공간의 조성등과 같이 가로에서의 표면적인 환경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건축과 도시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연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의 경험을 만드는 주요한 배경이자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 건축과의 경계에 대한 접근이 가로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건축과의 연속성은 용도 등의 물리적 속성만 관계할 뿐 공간적 고려는 배제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과 도시의 속성이 혼재된 현대 도시에서 그 경계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경계부인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공간에 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건축과 도시의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전면공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로로부터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도시공간의 경험 측면에서 주요한 배경이자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가로공간이 가지는 경험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미셸 드 세르토는 신체의 감각적 경험으로써 걷기를 통해 도시의 공간을 발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보행자의 걷기 행위를 ‘발화행위’¹⁾라고 명명하고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활용하면서 가로를 공간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도시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생활공간으로 도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생활에서 가로공간에서의 활동은 비단 이동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공간으로서 사회적 만남을 촉매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도시의 실질적 경계로서 전면공간 논의가 도시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제도적 측면, 환경적 측면의 고려만 이루어 졌다는 점에 근거하여 건축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봄으로써 건축과 도시가 적극적으로 매개되는 공간적 차원의 논의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에 도시를 활성화하고 건축과 도시의 교섭이 일어나는 경계로서 기존의 전면공간에 대한 개념에 건축물의 내부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면지층공간”이라 정의²⁾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현대건축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면지층공간의 요소와 연결방식 분석하고 나아가 전면지층공간에 대한 고려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의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그 세 가지 기능은 ‘지형전유’, ‘장소의 공간적 실현’, ‘상이한 장소간의 연결’이다. 김성도, 도시인간학, p53

2) 이의 한계와 그에 따른 개념 확장의 이야기는 2.1절에서 다룬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축과 도시의 경계로서 전면공간에 대한 이론 고찰에 의해 기존의 접근이 건축의 내부와 외부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분화하는 개념임을 지적하고 개념의 공간적 확장 논의로서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약화되는 현재의 양상을 토대로 논의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면지층공간”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다. 그리고 이의 구성방식과 의미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도시와 건축의 경계변화의 측면에서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른 맥락을 함께하는 사례로 대표적인 건축 잡지인 a+u를 기준으로 하여 2000년 이후에 실린 현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근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면지층공간의 양상을 보고자 하였다. 현대 건축물의 여러 사례들 중 건축과 도시의 경계에 대한 확장적 논의가 가능한 사례들로 주거,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일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을 제외한 100여개의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그 중 건축과 도시

대상	연도	건축가	용도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1993	Steven Holl Architects	Exsibition Hall
Casa da musica	2001	Herzog&Demeuron	Auditorium
Caixa Forum	2003	OMA	Museum
IT University	2004	Henning Larsens Tegnestue A/S	College
Ewha women University	2004	Domique Perrault	College
Morgan Library	2006	Renzo Piano	Libarary
Atrium,Jussieu	2006	Périphériques Architectes	College
Square-Brussels Meeting center	2006	A.2R.C Architects	Conference Hall
Nicolas center	2007	Shigeru Ban architects	Commercial
Museo dell' Ara Pacis,	2007	Richard Meier	Museum
Library and Senior Citizens' Centre	2007	RCR Architects	Library+Com munity
Towada art center	2008	Ryue Nishizawa	Museum
Extension of Art Electronica Center	2008	Treusch Architecture	Exhibition Hall
Dee and Charles wylly Theater	2009	OMA	Theater
Unilever Headquarters	2009	Behnisch Architekten	Office
Sofitel Hotel	2010	Jean Nouvel	Hotel
Musashino Art University Museum & Library	2010	Sou Fujimoto	Library
MACRO gallery	2011	Odile Decq & Benoit Cornette	Museum
La lira Theatre public domain	2012	RCR Architects	Exhibition Hall

Stedelijk Museum Amsterdam	2012	A.W. Weismann	Museum
Teruel Zilla	2012	Mi5 Arquitectos + PKMN	Community
Danish maritime museum	2013	BIG	Museum
Museo Jumex	2013	David Chipperfield	Museum
Market hall	2014	Mvrdv	Market+Residence

[표 1-1] 분석 대상

의 연속성이 잘 나타난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기존의 전면공간 논의를 살펴보고 도시적 관점에 따른 기존의 개념에서 도시의 활성화, 도시-건축 간의 적극적인 관계형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논한다. 그리고 내부 공간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전면지층공간”을 제시한다. 건축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1960년대 이후의 개괄적인 건축물의 사례에서 전면지층부를 대상으로 건축과 도시의 연결양상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전면지층공간의 구성요소를 통해 구성방식을 해석하기 위한 관점을 구축한다.

4장에서는 현대건축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외부의 연결방식에 따라 사례들을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경계가 연속성을 위하여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분석한 전면지층공간의 구성방식을 토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사례를 통해 전면지층공간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상에서 포착되는 전면지층공간의 양상을 통해 일상적인 공공공간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한다.

2. “전면지층공간” 과 도시-건축

2.1 전면지층공간의 정의

2.1.1 기존 논의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

(1) 도시와 건축의 인식변화

(2) 도시-건축의 물리적 경계부에 대한 논의

2.1.2 도시와 건축의 매개공간

2.1.3 중간영역의 확장

2.1.4 정리

2.2 도시-건축 연결방식의 다양화

본 장에서는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전면지층공간의 의미를 고찰한다. 전면지층공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논의하면서 건축과 도시의 경계 약화의 측면을 이해하고 기존에 경계부에 대해 논의한 전면공간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물리적인 경계영역인 전면층공간에 대한 공간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새롭게 정의한 전면지층공간의 용어에 대하여 작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정의한다. 새로운 물리적 범위에 대한 시각으로 1960년대 이후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과 도시의 연결 양상 살펴본다.

2.1 “전면지층공간”의 정의

우리는 가로공간의 질과 건물의 질을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도시생활인 상호관계의 모자이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공간은 어떤 것인가? 건축공간과 외부공간(우리가 가로라고 부르는)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의 형성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최대한의 접근성을 허용하여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날카로운 경계선도 무뎈진다. 어떤 건물에 천천히 진입하는 경우 현관문을 통과하는 유일하고 갑작스러운 순간의 중요성은 사라진다. ³⁾

전면 지층공간에 대한 고민은 가로라는 공공영역과 건축이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고민이며, 현대의 삶에서 사회적 접촉⁴⁾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인 가로의 연속선상에 있기에 그 구현에 대한 공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와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도시와 건축의 관계를 살펴본다. 더불어 경계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고 기존에 건축과 도시의 경계에 대해 다룬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확장된 논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1.1 기존 논의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

(1) 도시와 건축의 인식변화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에서는 도시를 20세기 이전의 city 개념에 다양성의 개념을 더하여 multi-city라 재정의 하고 있다.

이전의 도시가 중심성, 연속성, 위계성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에 따라 조직적인 성장을 했다면 현대 도시는 도시의 영역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정보 수단 등으로 인한 이동성에 의해 구축되는 것으로 불연속적이고 이론적이지

3) 헤르만 헤르츠버거, 안진이 역,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효형출판, 2010, p179

4) 리차드 세넷은 그의 저서 살과 돌의 서문에서 현대도시의 속도경험에 의한 움직임은 육체라는 물리적 조건이 공간으로부터 감각을 분리시킨다고 말하며 오늘날의 질서가 접촉의 결핍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 기피가 모든 영역을 구분짓게 하는 원인이며 결국 육체적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그 후 열린도시계획을 주장하며 사회적 접촉을 강조한다.

얇은 도시를 형성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액화 ‘liquefaction’ 라 칭하고 이동과 연결의 선들이 기하학적이기 보다 위상학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를 현대 도시로 보고 있다. 5) 이와 같이 네트워크, 이동성이 지원하는 정보, 사람의 흐름이 삶의 전반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도시의 끊임없는 변화와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는 건축공간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흐름의 연결망으로 도시는 더 이상 물리적 경계를 규정할 수 없으며 건축으로 유입되어 건축과 도시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러한 양상은 도시의 속성이 건축에 흡수되고 나아가 도시 생활의 연장을 이루며 건축이 도시화 되는 양상으로 확장된다. 6)

도시는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로 형성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다. 복잡한 관계와 이번의 의미,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함축된 공간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제시하는 일상적 환경 이상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 도시의 속성이 갖는 잠재성은 다양한 사건들로 드러나며 우연성을 전제로 한다. 도시가 일 방향적이고 수직적 위계에 의해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정보 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



[그림 2-1] 도시공간의 사유화, TIRANDO LA ONDA, '1:1 SCALE' 출처: <http://www.pkm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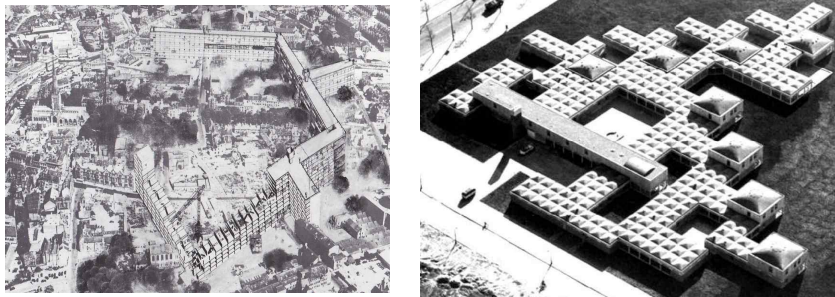
방향적이고 다 중심적인 속성을 갖게 됨에 따라 다양한 관계의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발전 역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이로 인한 이동성은 도시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이러한 변화가능성에 대응하는 거주방식의 등장과 더불어 건축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공간을 압축하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이들이 도시적 삶의 수단이 됨에 따라 도시의 이동 동선이 건물 안으로 흡수되면서 여러 흐름이 건물 내부를 가로지르게 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인한 거대한 구조에 의해 정의되는 구조적 관계에서 다양한 조직과 요소들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순환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기존의 머무는 공간에서의 장소적 경험도 이동성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거주로 비-장소와 같은 새로운 장소개념

5) Manuel Gausa 외 5인,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 2003, p424-425

6) 윤정원, 흐름을 통해 도시의 건축화를 조직하는 체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2004, p18, '도시의 살아있는 조직과 같은 작동 논리와 구조의 코드가 해석되고 변이 되어 '건축'으로 성문화되어 나타나는 구현 과정'

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 도시의 생활은 도시 전반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도시의 급성장에 의한 흐름의 논리에 따라 건축은 도시와의 관계를 요구 받게 되고 점차 도시화된다. 도시의 확장에 따라 생활공간 역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면서 도시의 속성을 건축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1960년대 말, 사회의 개방성에 더해 건축물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공공 공간인 가로공간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이는 Team X, 요나프리트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논의이며 건축과 도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로라는 도시의 영역을 건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도시에서 기대하게 되는 커뮤니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도시적 스케일의 공간을 건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건축의 구조가 도시적 스케일로 확장되면서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도시와는 단절된 또 다른 내부의 도시로 거대한 건축물을 계획하였으며 가로가 건축의 내부 요소로 분리되면서 도시의 다양한 속성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건축물의 확장과 도시의 순환체계에 대한 관심은 이후 알도 반 아이크 등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일정 모듈구조의 반복으로 확장 가능성을 갖는 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도시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가변성에 대응하는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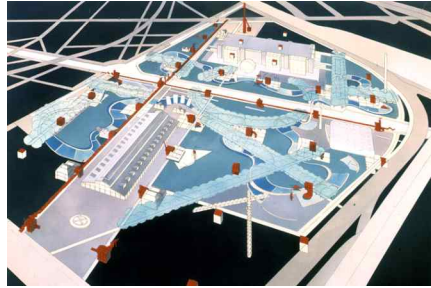
[그림 2-2] Alison and Peter Smithson, Golden Lane Competition, Street-in-the-Air 1952/ Amsterdam Orphanage, 1960

출처: <http://www.grids-blog.com> / <http://www.archdaily.com>

는 시도였다. 이는 건축을 통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에서의 경험을 건축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내재적인 속성을 통해 공간을 구성해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이후 도시공간에서의 '경험' 을 내부에서 재현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메가스트럭처와 같이 도시의 환경을 건축공간에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험, 행위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여 행위와

경험의 측면을 강조한 계획은 건축공간이 도시공간으로 확장되어 도시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츠미의 이벤트 개념이 대표적으로 건축과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1960년대 등장한 메가스트럭처 등의 접근이 거대한 도시규모의 건축공간을 제안했다면 그는



‘사건’을 통한 도시공간의 의미화를 유도한다. 공간, 움직임과 더불어 도시공간을 인지시키는 요인으로 ‘이벤트’를 제안하

[그림 2-3] Bernard Tschumi, Parc de la Villette, 1998
출처: <http://www.tschumi.com/projects/3/>

고 다양한 층위의 시공간을 중첩시키거나 병치시킴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의도하여 표현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에도 유효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인간은 배제된 채 내외부공간의 무한한 상호관입의 개념을 중시한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인간과 공간의 경계 해체로 그 경계가 모호하여 다층화 된 투명한 경계를 지니는 것과 관계가 있다.⁷⁾ 공간, 기능 중심의 생각에서 프로그램, 사건, 행위 중심으로 건축에 대한 사고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에서의 경험을 건축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와 도시의 잠재성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구축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접근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에서의 경험을 구축하기 위한 방식들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건축과 도시의 관계는 실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틀을 넘어서 비가시적이고 체험적인 인식적 경계 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7)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2003, 시공문화사, p.149

(2) 도시-건축의 물리적 경계부에 대한 논의

앞에서 논의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건축 전반의 변화에 대한 논의들은 있었으나 그러한 변화를 실질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경계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많지 않다. 건축으로 인해 생겨난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면공간에 대한 논의가 전부이다. 이에 전면공간에서 진행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된 전면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논점은 이 공간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인이자 이를 통한 보행환경의 개선이 다양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공개공지, 공개공간, 전면공지 등, 공공적 성격을 띠는 대지 내의 영역을 다루며 이의 활용과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접근과 인식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생겨난 공지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 중 공개공지로 조성되지 아니한 개인사유의 공지’의 의미인 전면공지를 뜻하며 사적영역이나 공적으로 활용되는 대지를 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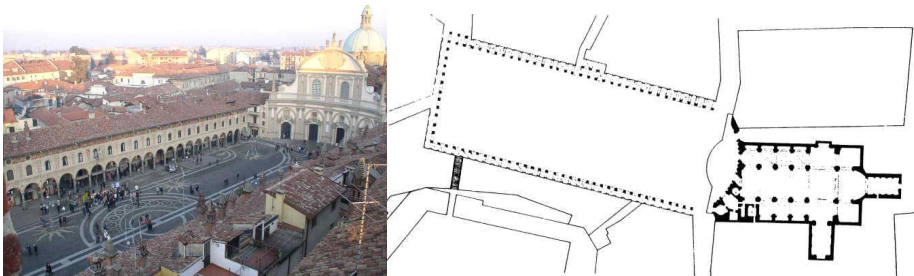
이는 평면적으로 구획된 영역을 전면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공간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가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실질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함의사항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주제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며, 전면공간에 대한 도시적, 건축적 차원에서의 양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건축과 도시의 매개영역으로서 고려할 때 보행환경, 경관과 같이 도시적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공간적 차원에서의 논의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기존의 대지 내 옥외공간과 같이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는 외부공간은 가로와 연속선상에서 고려되기는 하나 다만 비워져있을 뿐 분리된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전면공간이 건축과 도시의 접점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으로 건축과 도시를 내외부로 구분 짓거나 저층부의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의 접근에서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인 공간과 실질적인 인식적 차원을 다룰 때 진정한 상호적 관계로의 경계공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2 도시와 건축의 매개공간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우주의 다른 부분과는 구별되는 대지의 한 부분을 새로 만들어 내고, 정의 내리며, 경계를 짓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계는 안과 밖이 생기게 한다.⁸⁾

건축은 외부와 경계를 만들면서 공간을 형성한다. 그러나 도시로부터 내부를 한정하고 규정짓던 경계의 의미가 기술, 재료의 발달과 더불어 유연해지고 자유로워 졌으며 나아가 다의적이고 해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나타내던 외부의 벽이 근대 이후, 점차 구조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내외부의 관계가 점차 유연해지고 도시 생활이 건축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건축 내부의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는 등 두 요소가 만나는 장으로 교섭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전면공간에서 내·외부를 가르던 방식은 이러한 양상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질서를 위한 방편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다양한 도시경관이라는 지향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축과 도시가 만나는 최초의 경계로서 전면공간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4] 두칼레 광장과 바제바노 성당 배치

그림2-3는 두칼레 광장에 면한 성당의 전경과 배치도이다. 성당의 입면이 광장을 향해 곡면으로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광장과 성당이 만나는 사이공간을 입면의 계획을 통해 엄연한 건축공간인 성당의 입구공간이 도시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당의 내부공간과는 별개로 광장을 향해 곡면을 띄는 입면은 공간을 형성하고 광장과 만나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광장을 하나의 실처럼 구획하고 있다. 이는 성당과 건축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각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이공간에서 사용자는 공간에 대한 주체적 경험의 가능성을

8) Pierre von Meiss, 정인하 외1인 공역, 형태로부터 장소로, spacetime, p160

갖는다.

도시와 건축의 관계가 외부와 내부, 공과 사로 양분되던 근대 이전과 달리 현대의 건축과 도시의 관계는 다 중심적인 가치와 차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의된다. 위의 사진에서 외부에 조성된 경계공간은 관점에 따라 성당의 내부로, 외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마주한 광장과의 관계를 통해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따라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러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건축공간과 외부공간이 서로 접근을 허용함에 따라 내외부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적영역, 공적영역이라는 구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은 건축공간과 도시공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즉,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와 건축을 매개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을 고정적인 요인과 유동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때 대지, 환경과 같은 요인들이 고정적인 요인이라면 사람, 이벤트, 프로그램 등은 변인으로 시간과 행위가 개입함으로써 배경이 되는 환경이 구체화되고 경계를 만든다. 바닥이라는 동일한 고정적인 요인을 공유하고, 이 공간에 성격을 불어넣는 유동적인 요인에 따라 공간이 구획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 물체, 기능이 다양한 스케일로 만나는 경계공간을 매개적 장소(Intermediate places)⁹⁾라 한다. 서로 다른 조건, 상황들이 공간으로 구현될 때 그 경계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내부공간이 구획되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공간이 형성된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공간적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도시와 건축이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하므로 연속적임을 이해해야 하며 건축과 도시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면지층공간은 건축 공간에서 이러한 작용이 공간, 환경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영역으로 도시로부터 건축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가장 경계의 지점으로써 내부의 요구와 도시의 다양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접촉의 장이다.

9) Manuel Gausa,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이는 다른 환경, 물체, 기능이 만나는 지점이며 각 요소간의 관계는 scale에 따른 정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매개적 장소는 임시적, 잠정적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다.’

2.1.3 중간영역¹⁰⁾의 확장

건축과 도시의 관계는 분리·연결, 단절·연속, 경계·통로와 같이 상반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문턱과 전이공간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소’가 되어 버린다. ¹¹⁾

알도 반 아이크, 헤르만 헤르츠 버거에 따르면 중간영역이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개구부, 복도와 같은 연결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이 겹쳐져 형성되므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각 공간들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알도 반 아이크는 관계를 이루는 요소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에 대하여 ‘건축을 통하여 이러한 중간 영역을 제공하는 것, 작은 주택으로부터 거대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어떠한 행위를 위한 진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건축의 사명이다’ ¹²⁾라고 주장한다. 중간영역의 형성은 물리적인 틀로써 구획될 뿐만 아니라 비 물리적 요인들로 행위, 속성, 기능 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 및 도시 전반의 경계공간에 적용된다.

따라서 건축과 도시의 중간영역은 외부공간에서 건축영역으로 진입할 때 경험하는 공간, 내부공간에 들어섰으나 홀, 로비와 같이 완전한 내부성을 경험하지 않고 외부공간과 연속성을 가지는 공간이 이에 해당된다. 건축과 도시의 중간영역은 또한 내부에서도 용도, 기능에 따른 공간의 연결지점마다 전이적인 성격을 갖는 중간영역이 형성된다.

‘공간의 전이는 매개 공간으로 분절해야 양측의 중요함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매개 공간이란 반목된 양극 현상이 다시 이원화 현상이 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한다.’ ¹³⁾

10) 현대 도시 건축의 언어, p121

‘건축은 한정된 경계 영역을 확장시켜 명확한 중간 영역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 작은 주택으로부터 거대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어떠한 행위를 위한 진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건축의 사명이다.’, Aldo van eyck

11) Pierre Bourdieu,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1977), 형태로부터 장소로, p16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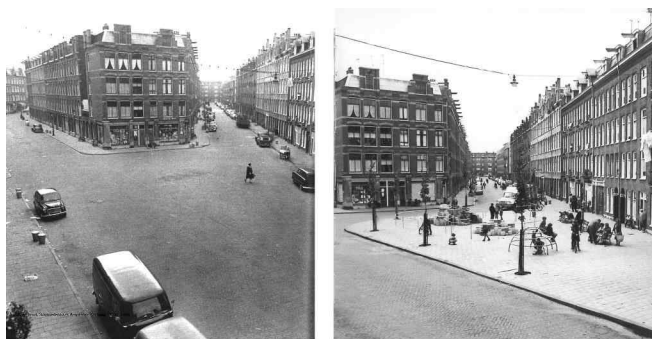
12) Smithson, Alison, Team 10 Primer, The MIT Press Massachusetts, 1974, 오광석의 2인, 알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 영역” 개념에 관한 연구, 2008, 재인용

13) Aldo van eyck, The gathering body of experience form and counterform individual concept and vernacular

경계면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공간들에 대한 양 방향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와 건축의 성격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관점에 따라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Richard Sennett¹⁴⁾은 이러한 경계의 성격에 대해 Border와 Boundary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경계인 Boundary는 내부의 영역이 끝나는 한계점으로서 저항의 기능을 하지만 Border는 영역과 영역이 만나 작용이 일어나는 교환의 장소로 접경이라 한다. 즉, 내·외부의 경계를 논할 때 어느 한쪽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교환이 아니라 결국 단절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경계를 세포막에 비유하며 표피와 내부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 사의 혼합이 일어나는 전도의 과정이 일어나는 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간영역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속성이 겹쳐져 작용이 일어나는 접경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접경(중간영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모호성을 주장하는데 이는 그 기능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으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이를 구현한 사례로 Aldo van Eyck의 놀이터 작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림 2-4에서 도로와 가로의 구분이 없는 광활한 도로는 알도 반 아이크에 의해 놀이터로 변화한다. 도로를 좁히고 넓은 인도를 만들어 놀이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해 넓게 비워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는 공간이 된다.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어른들도 모일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알도 반 아이크는 도시의 비어있는 공간에 이러한 놀이터를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행위가 도시 전반에서 일어나기를 의도하였다. 이 영역이 형성됨으로써 폐쇄적이었



[그림 2-5] Aldo van Eyck, Before and after image of playground on city sidewalk, Van Boetzelaerstraat, Staatsliedenbuurt, Amsterdam-Oudwest, 1961/ 1964

14) Richard Sennett은 도시공간과 건축에 대한 사고를 토대로 사회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다.

던 상점들은 사람들이 머뭇에 따라 가로와 교류하게 된다. 도시공간이지만 이 영역이 형성됨으로써 그 영역의 연속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상점의 전면공간이 형성되고 이동의 흐름을 만드는 건물들의 연속된 가로면의 행위가 이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침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세넷이 주장하는 중간영역이 갖는 의미는 결국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접촉을 유발하고자 함이며 이로부터 사람들 간의 불특정한 시선적 접촉을 경험함으로써 도시공간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도시와 건축의 접점으로서 교류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이자 건축과 도시의 실질적인 접점으로서 전면지층공간은 그 대상이 된다.

Michel de Certeau의 가로에 대한 해석은 앞서 논한 도시공간의 경험의 대상으로서 전면지층공간의 의미를 보충한다. 가로는 보행자에 의해 공간으로 전환되고 이때의 공간이란 빈번한 장소(frequented place)¹⁵⁾로서 경험이 축적된 일상적인 대상을 칭한다. 또한 개방된 공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특정 경험을 통해 도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장소화 된다. 즉 보행활동을 통한 도시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생활공간으로 도시를 받아들이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지층공간에서 내·외부를 통해 경험하는 이행의 경험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전면지층공간의 계획은 보행활동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각각의 파편적인 공간들이 통합된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은 가로공간에 다양한 성격을 부여하면서 일상적인 경험의 축적에 의해 생활영역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나아가 각 건물들이 갖는 전면지층공간이 가로로 연결됨으로써 공간들의 연쇄는 도시에 대한 시지각적 경험을 유발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한 도시 성격이 형성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확장된 도시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리처드 세넷은 ‘열린 도시(Open City)’ 개념을 주장한다. 이 개념은 가로, 광장 등의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불특정한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상호 유대감이 암묵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거주 영역¹⁶⁾으로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

15) Marc Auge, Non-places, Verso, 2009, p79

16) 노베르그 슐츠는 ‘The concept of Dwelling’ 에서 거주 유형을 자연, 도시공간, 공공공간, 사적거주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며 이 중, 인간이 세계의 많은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공간에서의 거주를 집합적 거주라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이 된다.

한 도시 공간에 대한 관점은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사고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그는 열린 도시를 구성하는 시지각적 요소로 1) 통과영역, 2) 불완전한 형태, 3) 발전적 서사, 4) 민주적 공간 네 가지를 제안한다.¹⁷⁾ 이는 도시의 장소감을 형성하는 시 지각적 요인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에 대한 감각을 강화시킨다. 도시의 다양한 영역을 드나드는 과정을 통해 도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통과영역은 그 이동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결공간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촉을 강조한다. 이는 절대적 관점에 의한 명확한 도시의 구획과 분리에 의한 접촉의 상실이 작은 변화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약한 도시를 만들게 됨을 지적하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접촉에 의한 도시의 혼종을 긍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상호 작용과 교류의 장으로 열린 도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따라서 전면지층공간은 도시를 이해하는 활동의 주요 장인 가로를 통해 연결되고 나아가 도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리처드 세네틱이 말하는 거주영역으로의 가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내·외부를 연결하는 전이적인 장치로써 문의 역할이 전이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어 중간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중간영역은 내부와 외부영역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확장된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의 각 목적지를 연결하는 가로¹⁹⁾와 건축의 접점으로 목적적 행위뿐만 아니라 이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우연적 행위를 수용하는 통과영역으로서 잠재적인 점유 가능한 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공간이자 공공공간의 측면에서 개인과 여러 집단의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전면지층공간을 생각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참여와 그 과정에서의 접촉을 통해 거주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

전면지층공간은 헤르만 헤르츠버거, 마누엘 드 솔라 모랄레스가 말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접촉이 발생하는 참여적 공간으로서 집합적 공간²⁰⁾과도 맥을 함께 한다

17) Open City, Berlin: Towards an Urban Age, NEWSPAPER ESSAY, BERLIN, NOVEMBER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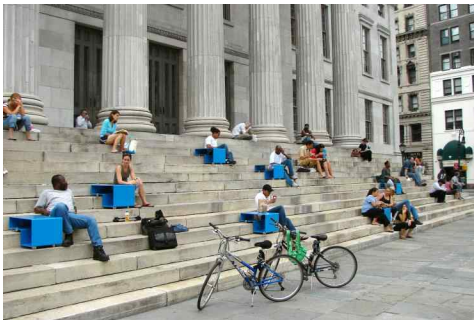
18)

<http://www.richardsennett.com/site/SENN/UploadedResources/The%20Open%20City.pdf>, p3

19) 김성도, Ibid, ‘길, 거리, 광장이 건축에 속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유도하는 행위들이 거주 행위 속에 통합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거주하기는 다양한 리듬들, 정치와 운동들, 고정화와 이동들로 이뤄진다.’, 김성도, 도시 인간학, 안그래픽스, 2014, p815

20) 사회적 일상을 암시하는, 도시 집단들에 의해 일정치 않게 이용되고 전용될 수 있는 공간들, 마누엘 드 솔라 모랄레스,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36인의 건축적 입장들 재인

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집합적 공간이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집합적 영역에서는 어디에서나 다양한 사회적 공간²¹⁾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접촉을 통해 사회적 공간으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바탕으로 집합적 공간에 대해 김민진(2009)은 석사논문에서 ‘사람들 간의 만남의 기회를 주고 행위와 개인의 위치는 분산되었으나 동시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 이라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거주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접촉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지층공간은 현대 도시적 차원의 공원, 광장 등의 공공공간보다 밀접하고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개인의 영역은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공유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아래의 사진에서 개인들은 건물의 전면공간을 공공공간처럼 자유롭게 점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가 그 공간을 공유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접촉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에서 이러한 공간의 사용은 사람들의 다양한 점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며 도시공간에서의 거주성을 토대로 한 열린 도시의 형성을 위한 건축적 연결고리가 된다.



[그림 2-6] Mark Reigelman: Stair Squares, 2008. [그림 2-7] 세종문화회관 전면공간의 공유
Brooklyn Borough Hall

기존의 건축과 도시의 물리적 접점에 대한 논의가 각각의 측면에서 일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졌다면 공간적 차원의 논의로 확장함으로써 건축과 도시공간의 접점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 방향적 접근을 이해하고 경계면으로서 표면적인 접근에서 공간적 논의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외부공간 논의에 중점을 둔 개념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전면지층공간이라

용,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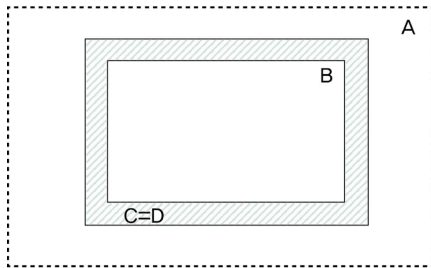
21) Ibid, 헤르만헤르츠버거, “사회적 공간은 도시의 모델이며 도시적 공간의 요약판이다.”, p116

는 용어를 통해 외부공간에 대응하는 내부공간의 범주까지 확장시킴으로서 그 관계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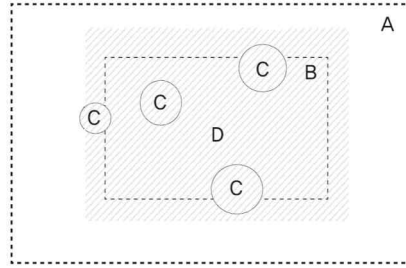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도시적 속성을 갖는 건축 공간, 내부의 속성을 갖는 도시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중간영역을 정리하고 이것이 확장된 영역을 통합하여 연속성을 가진 공간을 다룬다.

2.1.4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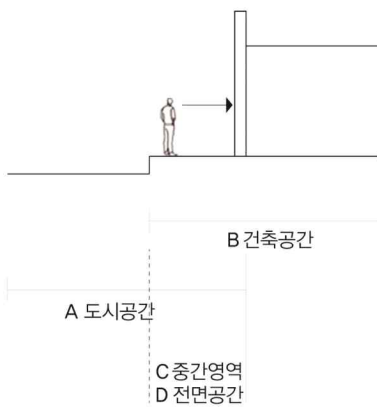
기존의 전면공간에 대한 연구 고찰을 통해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외부공간에 한정된 영역을 범주로 하여 도시와 건축의 또 다른 경계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전면지층공간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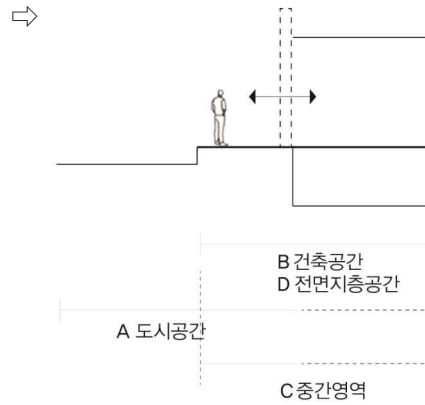
A 도시공간 B 건축공간 C 중간영역 D 전면공간



A 도시공간 B 건축공간 C 중간영역 D 전면지층공간



[그림 2-8] 전면공간의 범위



[그림 2-9] '전면지층공간'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면지층공간'이란 현대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의 연속성을 토대로 도시영역으로서 가로와 건축물이 시·지각적, 물리적 연결을 통해 공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통합되는 내부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내부영역의 범위는 지층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의 중간영역인 홀, 로비 등 명확한 내부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아닌 연결공간을 의미한다. 지층공간까지 확장 가능한 것은 기존의 전면공간으로 논의되었던 전면공지가 내부공간과 병치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공간과 도시공간이 공유하는 연속적인 바닥으로써 그 흐름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지층면(Ground floor)을 포함하고 내부공간에서 중간영역의 구성에 따라 지층면을 중심으로 한 상, 하부 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전면지층공간이란, 지층면을 중심으로 한 도시와 건축의 성격이 겹쳐지는 중간영역의 확장된 영역 전반을 말한다.

2.2 도시-건축 연결방식의 다양화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도시와 건축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60년대를 기준으로 현대까지의 건축물에서 도시와 건축의 연결 방식이 전면 지층공간에서 어떻게 다양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를 통해 도시영역으로서 가로가 건축물 내부로 확장되고 내부 공간 역시 도시로 확장됨으로써 도시와 건축 간의 명확했던 선적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상호적으로 확장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는 합리성에 근거하여 획일적 질서로 구획된 도시공간은 건축과 도시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는 내부와 외부, 공성과 사성에 대한 양분적인 사고가 공간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 상에 대한 설명으로 에드워드 렐프는 1960, 70년대 도시의 경관에 대해 ‘거대한 구조물, 직선공간과 초월 공간, 합리적 질서와 불변성, 견고함과 불투명성, 시각의 불연속성²²⁾’으로 설명한다.

‘콘크리트 벽과 반사유리로 된 거대구조물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때 묻은 콘크리트와 유리에 비친 유리의 모습뿐이다. 거의 모든 곳에서 시각적, 신체적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²³⁾ ‘여기에는 점진적인 변화나 예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양자택일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곧바로 직진하든지 아니면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기계 같은 가로로 나가든지 아니면 아트리움과 같은 보행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²⁴⁾

에드워드 렐프의 설명처럼 근대 도시를 만드는 건축은 가로에서의 활동, 건축으로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부에 충실한 공간 계획이 주를 이루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교통 중심의 도시 계획적 측면에 따라 외부공간에 대한 고민은 보행자보다는 운전자를 위한 쪽 뺀 입면들의 연속만 있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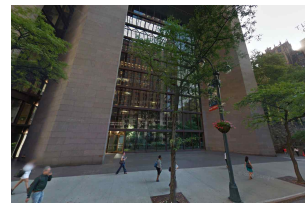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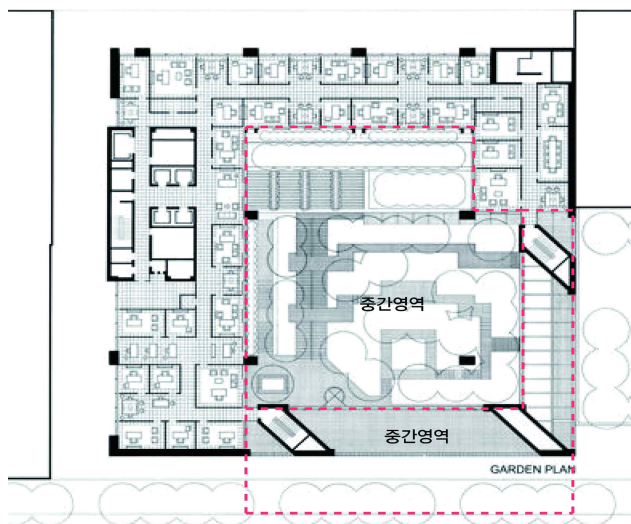
22) Edward Relph, *The Modern Urban Landscape*, 근대도시경관, 김동국 옮김, 태림문화사, 1999, p279-295

1960년대 후반 근대도시경관과 더불어 형성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경관의 속성으로 는 기이함, 건물전면의 다양한 질감, 유행성, 지역 환경과의 재결합, 보행자와 자동차의 분리를 언급함.

23) Ibid, p290

24) Ibid, p294

Ford foundation(1968)은 입면이 가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커튼월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개구부가 없는 평평한 유리 입면을 내세운 마천루들과 유사하게 전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있으나 그리고 내부의 아트리움에는 정원이 있어 유리창을 통한 채광을 극대화 한다. 건물 내부는 아트리움 공간의 정원을 둘러싸고 L자형의 업무공간이 커튼월로 다시 계획되어 있어 업무공간에서 도시를 향한 투시를 가능하게 한다. 주공간은 1층의 아트리움을 지나 높이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연속되는 가로를 나타내고 내부의 시점에서 아트리움을 통과하여 내부공간을 중심에 두고 외부를 조망하는 시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의 정원은 중간영역으로 도시와 건축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전이적인 경험을 유도하고 내부에서 도시를 사유화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내부의 업무공간을 유리벽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벽으로 아트리움을 둘러싼 물리적 경계를 이중으로 형성하고 있어 가로에서 철저히 구분되는 내부의 정원을 구성하고자 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유리라는 재료로 물리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고 구조체 뒤로 물러나 있는 입면 구성에 의해 근접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반사하는 유리의 성격이 강조되어 내외부의 양방향적인 시선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부공간의 다양성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도시-건축 간의 상호적 관계라기보다 내부지향적인 공간 구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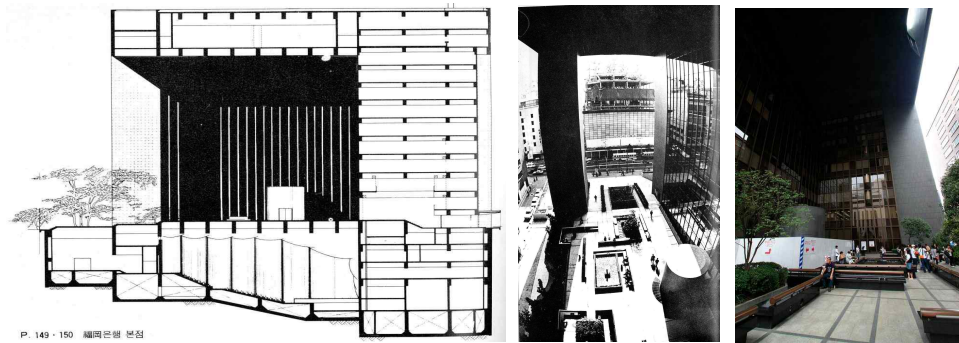


[그림 2-10] Ford foundation , 출처: <http://www.krjda.com>, Google street view

그림 2-8의 후쿠오카은행(1975)사례는 내부공간을 가로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밀한 구성을 취하며 그 사이에 녹지공간을 삽입한 사례이다. 단면상으로 위의 포드 재단사옥과 유사한 듯 보이나 이는 공적인 성격의 외부공간이 가로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쉼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와 차이를 갖는다.

건축가는 9개 층 높이에 거대한 무주공간에 벤치와 녹지공간을 두고 가로로부터 개방하여 외부의 공공영역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거대한 문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건물의 볼륨은 전면에 검은색의 석재를 사용하고 볼륨의 안쪽으로는 반사하는 유리창을 사용하여 그 안의 비어있는 공공공간을 대조적으로 밝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입구는 매스에서 분리된 또 하나의 볼륨으로 독립된 오브제로 존재한다. 가로의 영역이 대지내의 영역에 까지 확장되어 외부인의 활동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림2-7의 사례보다 적극성을 떠나 이 역시 도시가 가진 공적인 영역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 뿐 건축 내부의 영역은 외부공간과 분리되어 존재한다. 이 사례 역시 유리벽에 의한 물리적 경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어둡게 코팅된 유리가 외부의 풍경을 반사하며 내부와 분리된 외부성을 띠고 있다.

가로와 내부 공간 사이에 공적인 영역을 두어 외부인에게 개방함으로써 가로로부터 구분되는 전이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나 내부와 분리하여 병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경계 영역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1] 후쿠오카은행 단면도, 외부공간의 활용

출처: 길과 건축, 쿠쇼 키로가와, p150 /

(우)<https://www.flickr.com/photos/kentamabuchi/3803866001/in/photostream/>

외부에 공공공간을 두어 도시와 건축의 물리적 경계가 확장되는 양상은 Seagram Building에서 잘 드러난다. 시그렘빌딩 앞의 광장은 현재 논의되는 전면 공간의 의미인 ‘Privately Owned Public Space’의 이상적인 형태를 제공했다²⁵⁾고 얘기되는데 건축물의 배치에 의해 건물의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이는 도시

의 바닥으로 확장되어 외부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또한 이격된 건물의 지층부는 투명한 유리로 상부의 매스와는 구분되는 투명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 외부공간과 지면공간, 그리고 내부공간의 경계를 고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2] Seagram Building plaza, 1958

지면층이 홀, 로비의 기능을 하는 기존 사례들의 경우 외부나 내부의 경계에 전이의 역할을 하는 중간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로와 동일한 레벨에서 영역이 형성되어 물리적인 연결성은 좋으나 에드워드 렐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점진적인 변화나 다음 공간에 대한 예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와의 연결성이 없다. 경계가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내부 혹은 외부의 일 방향적인 연속성만 갖기에 목적적인 사용만 있을 뿐이며 건축과 도시의 경계는 선적인 구분에 의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출처: <https://placesjournal.org>

‘새로운 건축은 요소적이다. … 새로운 건축은 벽을 개방하였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분리를 없앴다. 벽은 이제 더 이상 지지재가 아니다. … 새로운 건축은 반 입방체적이며, 모든 기능적 공간단위를 입방체 안에서 밝을 향해 원심적으로 방사한다. … 이리하여 건축은 부유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26)

지면층을 개방함으로써 도시와의 적극적인 연결을 의도한 사례들도 등장한다. 이는 공간적인 경계가 내부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물리적인 경계는 투명성에 의해 얇아지며, 지면층의 물리적인 경계가 소멸되어 도시의 바닥과 통합되는 양상을 띤다.

Pompidou center(1977)은 공모전 당선시 모델에서는 저층부가 필로티로 띄워져 저층부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물의 진입공간이 광장과 면해 있어 이를 내부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완공 후 유리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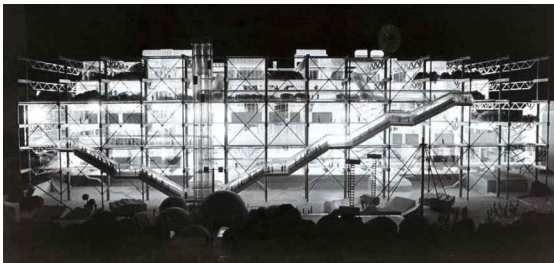
25) 이와사부로 코소, 서울리다리티역,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건축 예술 이민을 통한 움직이는 신체 뉴욕의 생성, 갈무리, 2012, p132-133

‘현재 전면공간의 의미는 1916년 신조닝법에 의해 건물과 거리, 건물간 사이공간이 물질적으로 확보되었으며, 1961년 ‘Tower in the park(조닝)’ 법규에 의해 사유화된 공공영역으로 발전한 것이다.’

26) 교야마 히사오 저, 김광현 역, 건축의장 12강, 도서출판 국제, 2008, p228

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대체되었으나 도시의 바닥을 연속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의도는 그대로 반영되었다. 건물에서 입면의 유리는 외부의 광장이 반사되어 내부공간에 까지 깊은 광장이 형성된 듯한 효과를 주고 있다. 그림 2-11는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시선이 나타난다. 사진으로는 어느 곳이 외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광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1층의 홀이 외부의 광장과 연결되어 마치 외부의 모습처럼 보인다. 동시에 외부에서는 광장을 반사하면서 마치 내부에까지 바닥면이 연속된 듯한 시각적 연속성을 유발한다. 동일한 레벨로 이어지는 바닥으로 인해 이러한 효과는 더욱 강조되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내외부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람들의 자유로운 점유에 의해 물리적 경계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구조들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건물의 특성에 의해 에스컬레이터를 외부에 두어 수직적인 이동을 드러냄으로써 그 자체로 내외부의 성격이 혼성적으로 드러나는 중간영역이 된다. 더불어 외부의 사용자들은 외부로 드러난 동선에 의해 내부의 사용자와 지속적인 시선의 접촉이 가능하며 서로 교차되는 시각적 연결은 외부의 광장까지 내부의 영역처럼 느끼게 한다. 확장된 광장으로서 1층의 홀은 이행의 과정에서 도시의 공간감을 경험하게 하여 내부이나 외부적 성격을 갖는 중간영역이 된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은 광장과 연속성을 갖는 내부의 바닥까지 확장된다.



[그림 2-13] Pompidou center competition entry
출처: <http://www.richardrogers.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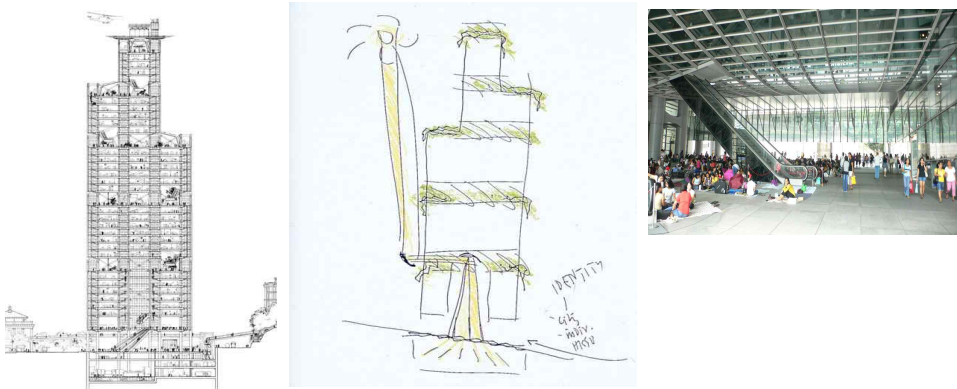
[그림 2-14] 내부 바닥의 확장

HSBC타워(1986)는 실질적인 물리적 경계가 없이 바닥면이 도시와 통합되는 사례이다. 그림 2-12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의 저층부는 필로티로 띄워 가로가 건물 내부로 확장되고 일반적으로 홀의 기능을 담당하는 1층 전체를 공공에게 내어주고 있다. 상층부와는 유리 패널로 그 경계를 나누고 있으며 이 유리패널이 아트륨 상부의 거울이 반사한 빛을 통과시켜 지면에까지 자연채광이 가능해지고 상부 공간과의 연속성을 느끼게 한다. 저층부와 업무공간의 수직적 연결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엘리베이터로 수직적인 연결을 하는 일반 업무공간과는 달리 몇몇층을 제외하고는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하여 이동 중 위치의 변화를 지

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면층에서 상부공간은 유리 패널로 최소한의 영역성을 가지면서 내부의 움직임은 드러내어 시각적으로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건물 내부로의 접근이 시작되는 공간이자 도심의 공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1층 공간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의 광장, 정류장과 연계하여 사람들의 지속적인 접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반외부적 성격을 갖는 광장의 역할을 한다. 주말에는 홍콩의 이민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²⁷⁾는 점에서 이곳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과 도시 상호간의 교섭이 활발해지면서 전면 지층공간은 1층의 영역을 넘어 그와 면하고 있는 지상, 지하공간에까지 확장된다. 기존에 전면 지층공간이 단일 평면상의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물리적, 시각적 장치를 사용했다면 램프, 계단 등의 수직 동선이 가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시와 건축을 연결한다.



[그림 2-15] HSBC은행 저층부의 도시적 속성

출처: <http://www.fosterandpartners.com/projects/hongkong-and-shanghai-bank-headquarters/>

그림 2-13의 Kunsthal(1992)은 미술관과 교차로를 결합하고 건물이 위치한 공원 과 미술관 램프로 연결함으로써 경계선으로 구분되던 도시와 건축의 영역이 서로 침투되는 양상을 보인다. 램프가 서로 다른 레벨의 공간을 연결하면서 하나의 바닥면에서 서로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이뤄지고 더불어 투명한 재료를 통해 내 외부의 활동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장면들이 중첩되는 효과를 낳는다. 외부와 내부를 잇는 동선이자, 도시의 공간을 잇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가로, 차량이 통과하는 길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속적인 동선을 만들에 따라 움직임의

27) 김성홍, 길모퉁이의 건축, 현암사, 2011, ch12.

과정에서 외부의 연장이자 내부공간인, 건축과 도시의 속성이 겹쳐지는 중간영역들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경계가 두께를 가지며 입체화 되는 것이다. 또한 바닥을 따라 움직임을 만드는 벽은 내부로의 시각적 연결을 유도하는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외부인으로 하여금 움직임을 통해 내부와의 연속성을 경험하게 한다.



[그림 2-16] 도로와의 결합
출처:
<http://www.architectmagazine.com>



[그림 2-17] 가로 연장으로 깊이 있는 전면 지층공간이 형성됨, Kunsthal, 출처:
yoavweiss.files.wordpress.com



[그림 2-18] 다양한 행위의 중첩
출처:
http://www.architectmagazine.com/cultural-projects/returning-to-the-kunsthal_o.aspx

프로그램의 복합화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와 건축은 더욱 적극적인 연결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도시의 인프라와 건물이 만나면서 확장된 경계로 발전하여 도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건축이 도시의 지형과 결합하여 도시화되는 경우 전면 지층공간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건축물을 아우르는 전 영역에 해당된다. 이것이 극대화된 사례로 요코하마 여객터미널(2002)은 순환패턴을 공간에 결합시키려고 했다. 교통인프라가 문, 한계의 구조적인 조직보다는 움직임의 장으로서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구조를 찾고 대지와 같은 평평한 건물의 형태를 결정한 것이다.²⁸⁾ 정원과 항구를 접목해야하는 요구조건에 따라 건축 자체가 경관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활동적인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이벤트와 사건의 장으로서 도시바닥이 건물로, 건물의 바닥은 도시로 확장되는 연속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바닥면이 만드는 경사면에 의해 변화하는 위치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된다. 내부에서는 바닥과 벽, 기둥 등이 구별 없이 이어진 면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동에 따라 각각의 경로를 만들고 이러한 경험이 내·외부에서 연속적으로 어우러져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소멸된다.

나아가 건물의 주공간이 지형과 결합하고 나아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의 공간은 상징적으로 남겨진 진입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도시 영역으로 개방된다.

28) FOA, Phylogenesis_foa's ark, ACTAR, 2003, p.227-257



[그림 2-19] 내부 바닥,천장,벽의 통합
출처:Groundscape, GG,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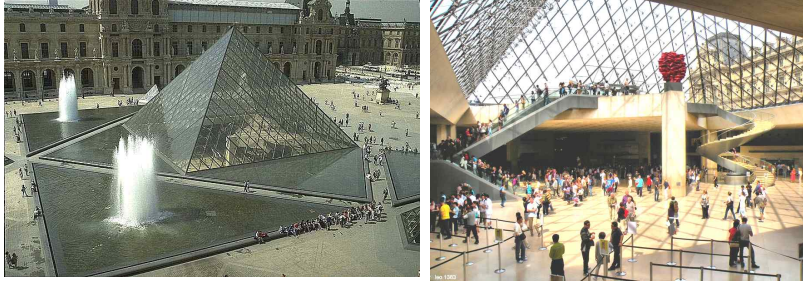


[그림 2-20] Yokohama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인프라와 건
물의 결합

그림 2-18의 사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은 유리로 된 원통형으로 상징적인 최소한의 입구 공간만을 가진다. 물리적, 인식적 경계는 지면에서 드러나나 내부 공간으로의 시각적 연결은 불가능하다. 지하에 내부공간을 설계하여 지면의 계단을 통해 지하공간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축물이 도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내부 공간에서의 오브제처럼 남아있는 건물의 매스를 빛내며 이 주변은 광장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비워 두었다. 또한 상부매스는 유리로 된 매스가 주변의 경관을 투과하며 건축공간이 도시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듯한 개방성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도시와 건축 간의 물리적 경계는 최소화 된다. 내부공간은 하부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서 인지되고 될 뿐 지면에서는 어떠한 공간적 지시도, 구성도 알 수 없다. 건물의 전면 지층공간은 압축적으로 필요한 요소만을 남기고 모두 지하로 감추어 지면의 공간을 공공에게 내어 주어 그 활용을 극대화 하였다. 건축공간을 지하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입공간을 두고 나머지는 광장처럼 비워둠으로써 전면공간의 공공성을 극대화한 사례는 루브르 박물관(1988)에서도 볼 수 있다.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지하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면서 상징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입구공간을 남기고 주변은 광장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징적인 입구와 광장으로 인해 장소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내부공간의 지하화는 안으로는 건축공간을 만들고 밖으로는 도시의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에 따르는 개방성은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없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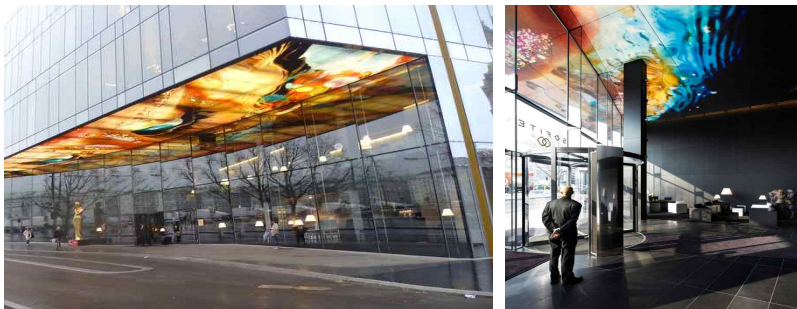
[그림 2-21] APPLE STORE, Shanghai, 2010
출처: <http://www.archdaily.com>



[그림 2-22] Louvre museum, 1988

공간적인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시지각적 연결은 유리라는 재료의 사용이 절대적이다. 시각적으로 내외부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전면에 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반영하고 내부를 드러내어 전면 지층공간이 도시와 건축공간을 아우르기도 한다.

Sofitel Hotel의 사례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현대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리의 재료적 속성을 활용²⁹⁾하여 감각적 차원에서 공간의 영역성을 부여하고 있다. 상부매스 바닥면의 이미지가 유리의 속성에 따라 반사되면서 이 면이 내부공간으로 확장된 듯 한 시각적 교란을 일으킨다. 동시에 외부의 풍경을 반사하면서 중첩된 이미지가 유리벽에 투사된다. 이동의 과정에서 건물과 근접성이 형성되고 이에 입면의 유리가 반사하는 이미지에 의해 시각적 연결이 일어나게 된다. 이 건물에서 상부 매스가 만드는 캐노피공간은 반사하는 유리의 성질과 이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화려한 색채의 이미지가 주변 환경과 차이를 드러내어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준다. 내·외부를 관통하는 상부의 이미지는 어둡게 코팅된 유리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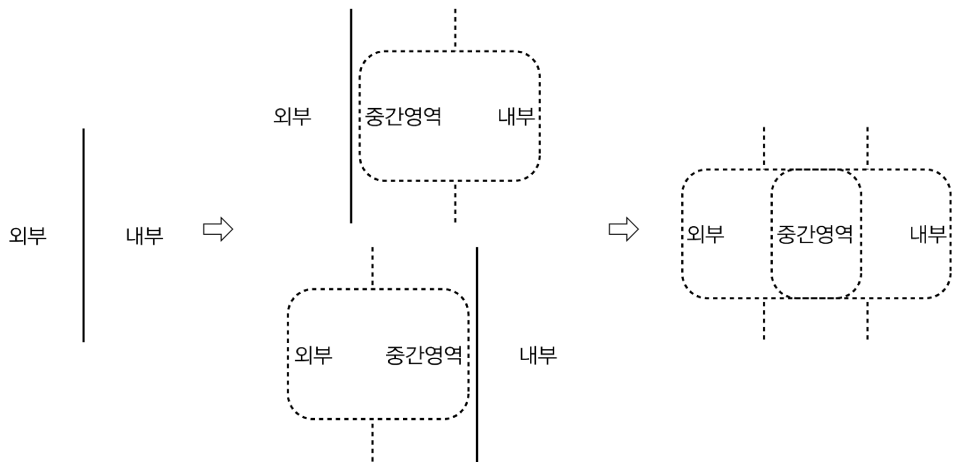


[그림 2-23] 재료에 의한 내외부의 중첩 Sofitel Hotel

29) 장 누벨의 작업에서 유리는 깊이감을 조작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대상이다. 그는 빛을 통한 공간의 조작과 사인의 중첩등 유리가 가진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리를 통한 깊이감과 그 밝기에 따른 효과를 통해 보행자는 가로에서 내부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색이 절제된 내부공간과 대조를 이루며 강조된다. 투명한 경계면을 활용하여 내외부의 시각적 교환에 의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 사례를 통해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내부로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는 유리벽과 이미지를 통한 효과로 인하여 내부공간으로의 지각적 확장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전개된 내용에서 전면 지층공간의 영역이 외부에서 건축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외부의 선/면적 구분	중간영역 형성에 따른 입체적 경계 -외부공간의 활용 - 가로의 확장 ³⁰⁾	가로의 내부화 ³¹⁾ 재료를 통한 시지각적 연결 도시공간으로의 물리적 확장
물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의 확장	인식적 경계 형성, 도시공간으로의 확장

[표 2-1] 전면 지층공간의 범위 확장 양상

Manuel de Sola Morales는 도시란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보다 더 많이 사회화 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며 좋은 도시란 개인의 건물들이 공적 요소가 되고 도시화되면서 이면의 사회적 가치관을 전달하게 도시³²⁾라 말한 바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도시와 건축의 연결방식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등장에 의해 폐쇄적인 내외부의 구분에서 점차 다양하게 상호 관입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30) 물리적 영역의 확장을 뜻하며 내·외부는 여전히 구분되어 있다.

31) 도시공간이 내부공간으로 확장, 연결되어 내부공간화 된 것을 의미한다.

32) 권영민 역, Ibid, p109

있다. 유리를 건물 전반에 사용함으로써 경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유리에 의한 내외부의 관계는 내부 우위의 관점에서 외부의 관점이 강화됨에 따라 대립적인 관계에서 동위적관계로 변화하였다. 경계면의 이러한 변화는 도시와 건축을 인식함에 있어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의 혼재적인 양상을 수용하며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개략적으로 살펴본 도시와 건축의 연결방식의 흐름에 따라 전면지층공간이 도시공간이 흡수되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건축 내부에서 도시로 확장되는 양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건축의 연속성에 대한 방식이 물리적 측면에서 유리의 사용이 확장됨에 따라 시지각적 효과의 측면으로 점점 세분화되고, 물리적인 공간의 관입에 따른 적극적인 매개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폐쇄적인 입면의 연속으로 형성되던 도시의 경관은 유리를 통해, 도시의 속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에 적용함으로써 내부를 외부로 드러내면서 다양한 이미지들의 중첩을 통해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도시공간에서 전면지층공간의 양상

전면지층공간에서는 멈춤과 이동이³³⁾ 교차된다. 도시의 흐름에서 내부로 방향전환을 함으로서 연속적인 가로의 흐름은 내부로 이동한다. 앞서 도시와 건축의 연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본 절에서는 실제 가로에서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면공간이 외부공간에만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그 영향이 내부공간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면지층공간의 확장된 개념에 의한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의 사례를 통해 전면공간에 국한된 논의가 갖는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속적인 도시의 경험을 제공하는 배경으로서 그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그림 2-24은 내부의 프로그램이 외부의 벽을 활용하여 내부공간의 기능을 외부로 확장함으로써 물리적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내부의 프로그램을 압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목적적 행위보다 가로에서의 우연한 접촉을 통하여 적극적인 교환을 유도하는 형식이다. 이는 의도된 외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의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외부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4]내부공간을 압축한 가로 대응공간

내부공간의 공공성에 의해 경계가 확장되는 양상 역시 발견된다. 내부의 프로그램이 공공적 속성을 가질 때 내부가 개방성을 가지고 도시로 확장되려는 속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접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2-25는 상점이지만 저층부에 공공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성격은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것뿐만 아

33) 칸은 건축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멈추는 움직임과 멈춤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유도하는 움직임, 이 두 가지로 정리한다. 그리고 건축에서 움직임을 유발하는 요소에 의해 주체가 이동하고 이러한 신체적 경험을 통해 그 공간이 장소로 확대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멈춤의 공간에서 다음 여정을 선택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강조하며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다리는 공간으로서 주공간의 성격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공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니라 전시물과 전시 내용을 외부로 드러내려는 적극적인 매개 방식을 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내부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가로의 흐름을 유입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월, 내부 전시에 대한 프리뷰 공간을 통해 내부공간의 성격을 외부로 표출한다.



[그림 2-25] 내·외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

유리창을 통한 시각적 연결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면공간의 형태이다. 이는 내부의 상품이나 행위를 외부로 드러내어 내부로의 인식을 유도한다. 이로부터 외부의 보행자와 내부의 상품/사물, 사용자 간의 시선적 연결이 발생하며 근접성에 따라 내부공간에 대한 인식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물리적 경계와 신체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시각을 넘어서 촉각, 후각 등의 종합적 감각을 유발하여 보는 것 이상의 공간적 참여를 유도한다. 소비가 중심이 된 상업가로에서 연속적인 쇼윈도우는 상품을 매개로 이를 가로로 드러내면서 외부인과 내부의 매개물과 인식적인 연결을 통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가로에서의 흐름은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품과 사람간의 거리가 밀접하고 내 외부의 공간적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진열이나 좌판에서의 상행위가 복잡하게 일어난다. 각 상점들의 경계공간에서의 교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그 흐름이 가로 전체로 확장된다.

나아가 그러한 물리적 경계마저 해체되어 내부의 활동이 외부로 드러난다. 보행자와 내부의 사용자 간의 시각적 접촉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내·외부의 행위가 중첩되어 비일상적인 상황을 만든다. 공간의 물리적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그림 2-26] 내부 상품-외부 행위자 간의 시각적 연결

내·외부 공간에 대한 인식적 통합을 유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통합은 내·외부의 위계를 없애고 사용자들 간의 공유공간으로서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수용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유발하는 장을 형성한다.



[그림 2-27] 내부의 물리적 경계 제거

그림 2-27은 판매와 소비, 상품의 제작 공간이 한 공간에 밀집해 있고 외부와의 물리적 경계를 없애 내부공간의 복합적인 사용이 외부로 드러난 사례이다. 교차로에 접하고 배치의 특성상 두면을 모두 개방함으로써 개방감을 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시각적 접촉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가로와 접해있어 보행자와 내부의 사용자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대한 인식적 확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난다.

그림 2-28에서 내부에서의 활동이 가로로 나와 사용자와 보행자간의 활동이 중첩되면서 중간영역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내부의 가구가 외부로 확장되면서 내부에서의 행위가 가로를 점유하여 물리적 경계가 불분명해 짐을 보여준다. 이는 내부공간과는 낮은 담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나 이러한 가구를 통해 내부의 영역임을 짐작하게 한다. 가구를 통해 내부의 활동이 가로로 확장되고 동시에 내부 공간 역시 가로를 향해 확장되면서 사용자와 보행자간의 다양한 시각적 접촉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부공간의 적극적인 사용은 프로그램을 넘어서 사람들의 행위로 구성되는 경계공간으로 발전된다.

가로에서의 다양한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업가로에서 나타나는 전면공간은 내부공간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내부의 확장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의 행위역시 내·외부의 구분이 없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내부의 프로그램을 담는 물리적 공간이 경계너머의 도시영역으로 확장됨으로써 내·외부의 구분을



[그림 2-28] 내부 활동의 확장

의미없게 만든다. 전면지층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근접성을 매개로 한 사람들 간, 여러 대상으로의 접촉에 의해 도시의 연속적인 흐름이 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건축에서 구체적인 공간적 장치에 의해 내·외부의 연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일상적인 도시환경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양상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상업이라는 물질적인 교환이 주가 되기는 하나 도시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자 도시성을 대변하는 주요한 활동의 장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일상적인 사례에서 포착한 도시와 내부공간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유의 공간으로서 집합적인 양상을 통해 생활영역으로 확장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반드시 형성될 수밖에 없는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연속성을 가지고 각각의 파편적인 공간들이 가로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내부의 성격을 포함하면서도 유연한 점유가 가능한 공공공간이 확장된다.

3. 도시와 건축의 매개에 관여하는 요소

3.1 물리적요소

- (1) 배치
- (2) 바닥
- (3) 벽/기둥
- (4) 천장
- (5) 재료
- (6) 빛

3.2 비-물리적 요소

- (1) 프로그램
- (2) 행위

2장에서는 도시와 건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경계에 대한 변화에 집중하여 이를 매개하는 물리적 영역으로서 기존의 전면공간의 범위를 내부공간에까지 확장시켜 전면지층공간으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면지층공간에 관여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다른 전면공간의 범위에는 건물의 외부 공간, 1층부의 용도, 공공성을 갖는 건물 1층의 공적영역, 파사드, 외부공간의 시설물 등이 있다. 이는 기능적 차원의 논의로 공간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공간요소에 대한 접근이 없다. 도시와 건물을 매개하는 접점으로서 공간적 차원의 논의를 위해 접지면을 기준으로 한 지면층의 공간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봄으로써 도시와의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물리적 요소

(1) 배치

전면지층공간은 도시로부터 건축의 경계설정에 따라 결정된다. 한정된 대지 안에서 도시와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는 전면지층공간을 설명할 때에 첫 번째 기준이 된다. 도시와 건축은 도시의 바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연결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배치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대지와의 관계설정에 따라 건물이 갖는 흐름이 결정된다. 가로에서 어떻게 접근할지의 문제는 경계를 고민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며 접근방향과 방식에 대한 문제는 가로로부터 접한 면에 따라 개방성의 정도와 접근방식이 달라지므로 그 연속성을 어떻게 구성할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본적으로 건물은 한 개 이상의 출입구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한 면 이상은 가로와 접하며 가로의 폭, 길이, 인접한 건물의 유무, 높이는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와 프로그램이 갖는 성격에 따라 접근방식과 개방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는 진입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건물의 성격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방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며 이로부터 결정되는 전면지층공간은 건물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기존의 전면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던 영역 역시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 경계를 기점으로 한 외부의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입구를 경계로 외부공간을 도시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내부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내외부의 단절을 유발하였다. 환경적 조건에 따라 배치는 달라지며 같은 조건에서 배치에 따라 가로로부터 내부공간으로의 연속성은 다르게 경험된다.

따라서 전면지층공간에 관여하는 물리적 요인은 가로와, 건물의 저층부까지 이어지는 범위를 설정하는 배치에 따르며 이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설정된다.

(2) 바닥

도시와 건축은 같은 바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연속성을 갖는다. 이에 도시와 건축을 하나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우연적인 만남과 같은 도시에서의 활동을 건축 내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도시의 가로를 수용하는 전면지층공간의 구성은 개인에게 다양한 선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교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닥은 가로와 속성을 끌어들이므로써 도시와의 연속성을 표현하는 요소이자 레벨을 활용함으로써 신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내부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 도시의 가로가 건축물의 바닥에까지 연결되면서 도시의 흐름은 내부에까지 연속적으로 작용하며 이때에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흐름의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의 흐름을 만드는 건물의 구성은 수평적일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이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로티, 경사로, 계단은 동선의 배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서의 이동에 관여하는 요소이다.

르 꼬르뷔제의 5원칙 중 하나인 필로티와 건축적 산책로 개념은 설계 시, 고민해야 하는 바닥 영역과 그 밖의 공간간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를 반영한다. 그의 작업에서 필로티가 처음 등장했던 시트로앵 주택(1922)³⁴⁾에서 베니스 병원(1965)에 이르기 까지 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필로티는 방문자를 입구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과정적 공간에 참여함으로써 건축적 산책의 시작 단계에 기여하고 있다.³⁵⁾ 들어 올려진 바닥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은 입구와 관계 그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사고로부터 가로와 건물의 저층부 공간은 단순히 비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람, 차량의 흐름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중력의 작용에 의한 공간이다. 나아가 필로티된 바닥 영역은 장소로서 고민되며 필로티와 함께 사용된 건축적 산책로는 걷는 행위와 보는 행위를 통합시켜 내부에서 옥상까지 연속적인 시퀀스를 제공하고 필로티로 동시에 계단과 램프는 내외부의 연속적인 흐름을 강조하며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한다. 이는 스케일에 따라 가로와 내부로부터 구분되는 중간영역을 만들며 이동과정에서 유보의 영역을 만들며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전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가 된다.

명확한 중간영역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바닥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연속적인 체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이적인 공간으로서 다양한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작용한다.

(3) 벽/기둥

벽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 짓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건물 내부로 이끄는 입구와 입

34) Lika & Angreas Ruby, Groundscapes, GG ,p10

필로티를 통해 도시의 바닥을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는 건물의 오브제적 성격을 부각시키며 내부공간과는 구분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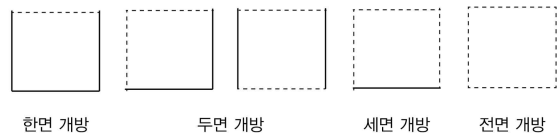
35) 조주현, 르꼬르뷔지에 건축에서 건물과 대지의 분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2013, p149

면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가장 경계의 벽이다. 물리적 차단과 수용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축 설계 요소 중 가장 직접적으로 영역을 구획하는 수단이 된다. 벽을 실제로 만지는 일은 드물지만 감각적으로 벽이 만드는 공간에 의해 외부와는 구분되는 내부적 성격을 감지한다.

외부와 내부의 사이에서 연속성을 조절하는 요소인 벽은 재료나 개폐정도에 의해 가로에서 내부 공간까지의 이행적 공간을 구성한다. 이에 벽의 구획에 의해 구성되는 외부공간에서의 활동과 연속된 내부공간이 형성된다.

기둥은 벽과 더불어 영역을 구획하는 요소로 벽이 시야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기둥은 시선을 연장시키고 열주의 배치에 따라 벽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도 한다. 기둥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은 완결적인 성격보다는 외부로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다.

그림 3-1은 대지 내에서 매스의 배치에 따라 진입부의 공간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배치는 벽, 바닥에 의한 최초의 경계로부터 가로의 영역 사이에 개방된 공간을 만들고 이는 내부와 외부공간의 관계 설정을 반영함으로써 내외부의 관계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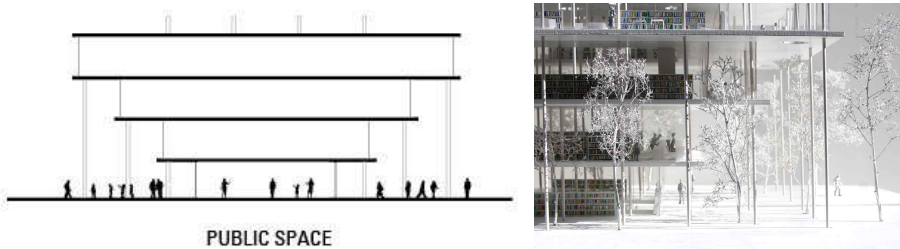


[그림 3-1] 저층부 계획에 따른 외부공간의 형성

벽-재료

벽은 구성이나 배치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로 공간을 구획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시각적 접촉도 가능하게 하는데 현대건축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리벽은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 유리가 빛과 만나 드러내는 특성으로 투명한 표면은 내부를 드러내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경계를 인식적으로 해체한다. 반사하는 유리벽이나 내부에 대한 인식적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의 경우 활동을 유발하기 위한 매개로 사용하기보다는 냄새나 소리, 접촉을 차단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하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폐쇄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유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건축에 접목한 대표적인 건축가인 장 누벨은 유리와 빛이 만나 나타는 효과를 이용하여 표면의 상태, 투과도, 색채 등 유리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을 계획한다.

그림 3-2는 2012년도 대구 고산권 공공 도서관 국제 공모의 수상작으로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듯 저층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중심에서 확장되는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바닥면을 지탱하는 각 층의 판을 지지하는 얇은 기둥은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나무와 유사한 스케일을 하고 있어 나무숲을 연상시킨다. 또한 전창이 유리로 되어 있어 하부의 개방감과 유리의 투명성에 의해 주변 환경을 내부로 흡수하는 듯한 효과를 만든다. 이 수상작의 전략은 공간을 구획하는 요소로서 투명한 유리가 외부로부터 최소한의 얇은 경계를 형성하고 일정한 그리드에 반복되는 기둥들은 나무와 외부공간과 유사한 스케일의 공간을 형성하며 연속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위 수상작들의 공통적인 계획특성은 저층부에 유리를 사용하고 기존의 수목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의 저층부에 공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상작들의 1층의 전면 유리는 상부의 하얀 볼륨과 대조를 이루며 저층부가 띄워져 있는 듯한 효과를 갖는다. 이 사례에서 내외부의 연결은 중심이 없는 평면 구성과 더불어 투명한 유리벽이 만드는 개방성에 의해 성립된다.



[그림 3-2] Daegu Gosan Public Library Competition, 3rd Prize, JAJA Architects
출처 <https://www.japlusu.com/news/interview-jaja>

유리벽의 효과에 주목한 대표적인 작업으로 장 누벨의 까르띠에 재단은 유리를 통해 사용자, 즉 주체와 유리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객체간의 매개를 의도함으로써 내·외부를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두 타입의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로에 면한 가장 외측의 유리와 1층 전시장의 유리는 18mm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크기도 3x8m에 달한다. 반면 2층부터는 3x1.1m의 24mm 복층유리를 사용³⁶⁾하였는데 이는 1층의 전시공간의 높은 층고가 갖는 투명한 볼륨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자 장애물 없이 내부공간으로의 시각적 접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6) 김창균, 현대건축에서 유리 사용의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74

유리의 효과는 가로-외부공간-내부공간에 이르는 공간에 시각적 연속성과 더불어 주체와 매개하는 내·외부 객체가 시각적으로 관통됨으로써 다양한 접촉을 유발하며 이는 사적 영역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벽과 대조적으로 내부와 외부간의 시각적 교류를 유발한다. 빛에 의한 유리의 효과는 거리에 의해 반사, 투과등의 효과에 차이를 보이므로 사용자의 스케일을 고려한 유리벽의 배치는 가로와 내부의 시각적 교류를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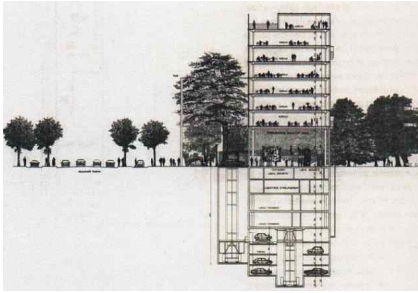


그림 [3-3] 주변 환경의 관통
출처:

<http://www.landscapelimited.com/projectdetails.asp?pid=94>



[그림 3-4] 유리벽에 의한 저층부의 개방성.
출처:

<http://presse.fondation.cartier.com/?photo=1925>

따라서 전면지층공간에서 벽의 역할은 공간감뿐만 아니라 동선에 대한 흐름을 제시하고 그 재료와 방법에 따라 내·외부를 연결/구분 한다.

(4) 천장

전면공간에서 천장은 영역성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내외부의 시각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벽과 달리 천장은 내부의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간의 구성요소이다. 벽과 더불어 공간의 형태를 만드는 요소로 천장면의 경계는 공간의 크기를 체감하게 하고 모서리의 처리에 따라 공간을 한정짓거나 확장되는 효과를 만든다. 캐노피 혹은 필로티로 구획되는 공간은 그 높이에 따른 빛의 변화에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밝거나 어두운 공간을 형성하며 공간의 질적 차이를 만들고 외부와 구분되는 내부의 영역을 형성한다. 층고에 따라 결정되는 천장이 만드는 공간감은 가로로부터의 연속적인 감각을 유발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1층의 로비 및 홀은 외부의 흐름을 수용하기 위하여 비교적 높게 구성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또한 아트리움은 자연 요소를 끌어들이어 내부에 균질한 빛을 끌어들이고 가로와 같은 감각을 유발한다. 이에 높이, 재료에 따른 천장의 구성은 도시로부터 점진적인 접근의 과정을 포함하며 여러 차원의 내부성을 형성한다.

(5) 재료

건축물의 입면과 그 공간은 환경과 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재료는 사용자 하여금 공간에 대해 간접적이고 공감적인 경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행위를 위해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재료는 공간을 구획하는 요소에 작용하여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입면의 재료는 외부환경을 반영하여 폐쇄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개방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리는 다양한 반사, 투과, 투영 등의 다양한 효과를 만들면서 경계를 유연하게 변화시킨다. 외부로 반사하는 유리는 주변 환경과의 대조를 통해 내부공간을 강조하기도 하고 내·외부를 통합시키기도 하는 등 깊이를 가지는 경계 형성이 가능하기에 그 효과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갖는 재료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 경계에 관련하는 재료들은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변화 가능한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료들이 갖는 독립적인 특성은 바닥이나 천장 등의 영역에서 패턴, 재료의 색, 질감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각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감각적인 효과를 만든다. 따라서 재료는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의 상대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지표이자 연속성을 의도하는 수단이 된다.

(6) 빛

물체의 존재성은 개구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그 빛으로 생기는 어두움이 명료하게 대비됨으로써 강조된다.³⁷⁾ 빛에 의해 공간이 고유한 성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도시와 건축공간의 경계는 빛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는데 빛이란 물체로 인하여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만나 영역을 형성한다. 빛이 공간에 작용할 때와 표면에 작용할 때 건축의 입면, 공간의 깊이 등 구성된 공간과 다른 영역과의 차이를 드러내며 그 위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경계에서 작용하는 빛은 도시와의 연속성과 차이, 전이를 경험하게 한다. 입면의 재료에 따라 빛이 통과하여 내부공간과 외부로 통합하기도 하고 반사시켜 건물의 외곽선을 흐리게 만든다. 또한 빛이 물체와 만나 형성되는 그림자는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며 영역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유리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빛은 내부와 외부의 환경을 유사하게

37) 김광현, 건축과 빛, 이상건축, 1999, p73

만드는데 큰 작용을 한다. 자연광을 내부에 들임으로써 지역적,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의 연출과 경험이 가능하다.

3.2 비 물리적 요소

(1)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내부의 기능들과 활동에 따라 내외부부의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 도시의 확장에 따라 건축은 단일한 기능에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도시의 속성이 건축으로 들어온 것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복합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간에 의한 혼성과 구성에 의한 혼성³⁸⁾이 있다. 전자는 공간을 점유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동일 시간대에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램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변화하는 일시적인 활동과 환경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

베르나르 추미는 프로그램에 의해 예측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강조한다. 프로그램이 반복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반면 이벤트는 우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미확정적인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일상적인 행위에 의한 사건들을 수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용에 따른 의미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우연적 상황을 수용하는 공간은 그만큼 다수에게 참여 가능한 공간으로 열려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공공적인 속성을 갖는 건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적인 공간의 사용보다 시간과 사용에 따른 불확정적인 속성의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전면지층공간은 두 영역이 겹쳐지는 공간적 특성상 내부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공간과 더불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된다. 외부공적인 속성을 수용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른 내밀한 공간보다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가변적인 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2) 사용자/행위

38) 윤정원, Ibid, p115

건축은 어떠한 행위를 위한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된다. 39)

행위는 흥미가 사용자를 중심에 둔 새로운 공간적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요소인 공간, 움직임, 이벤트 중 하나이다. 그는 공간이 행위를 통해 충격을 받게 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행위가 공간에 침입하는 것으로 사람의 행위를 통한 건축공간의 체험을 중요시 하였다. 이는 행위에 의해 공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며 공간에 대한 참여의 속성을 충격이라 표현하고 이를 강조한다.

도시공간에서의 프로그램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규정된다. 도시 공간은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인 행위로 규정되며 건축적 프로그램에 의한 내부공간과 불확정적인 영역으로서 도시공간의 접점으로서 전면지층공간은 행위에 따른 다양한 공간의 점유 가능성이 잠재하는 공적인 속성이 중첩되는 영역이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참여에 의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공간의 물리적, 기능적 구성에 의해 유발되는 사용자의 행위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경험에 의한 장소로의 의미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중심이 된 건축의 공간적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움직임을 어떻게 조직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여러 요소들을 이으며 다양한 상황을 유발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전면공간의 계획은 도시로부터 상황들을 촉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이는 행위의 참여를 유발한다. 사람들의 불확정적인 행위에 대응하여 위의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전면지층공간의 동선 계획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된다. 의도적 움직임 혹은 선택적 움직임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내부공간으로의 단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함으로써 사용자의 체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에 대한 체험과정이 따르게 되며 이를 시퀀스라 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행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지각 등을 통해 공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형성한다.

행위는 목적과 자극의 요인에 따라 목적적이거나 우연적으로 유발된다. 전면 지층 공간에서의 행위는 칸이 건축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이동과 유보로 구분한 것에 근

39) 베르나르 흥미, 류호창 외 1인 역, 건축과 해체, 도서출판 시공, 2002, p143

거하여 공간에 대한 참여의 정도에 따라 유보(일시적 점유)/시각적 연결/참여로 나눌 수 있다. 유보란 공간에 멈추어 서는 것으로 공간에 대한 잠시 머무는 행위이다. 이는 공간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며 다음 공간을 위한 요인이나 방향성의 선택이 있는 전이적 공간이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공간에 머문다는 활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보다 공간에 좀 더 참여적인 행위로 시각적 유보의 행위가 있다. 이는 내부의 대상이나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에 경험하고자 하는 이행까지의 과정을 갖는다. 의식 없이 공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연결을 통해 그 공간으로의 인식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단지 공간이 가진 기능적인 측면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를 살피고 공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시도를 유발하는 좀 더 깊은 내부성을 경험할 수 있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는 공간에의 참여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부여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공간의 성격을 형성할 수 공간에 대한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내부공간이 갖는 성격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유보나 시각적인 연결 보다 더 깊은 내부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4. ‘전면지층공간’의 연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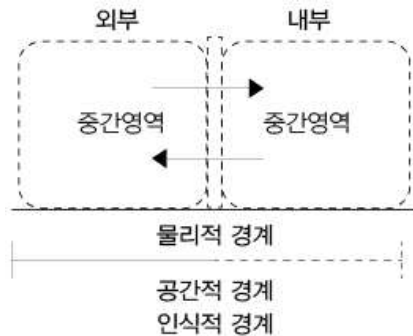
- 4.1 투명한 경계를 통한 연결
 - 4.1.1 외부를 연상시키는 요소의 삽입
 - 4.1.2 내·외부공간의 중첩
 - 4.1.3 가로와의 병렬적 연결
- 4.2 다중적 경계를 통한 연결
 - 4.2.1 재료에 의한 연속적인 감각형성
 - 4.2.2 교차 공간의 삽입
 - 4.2.3 지형으로의 흡수
- 4.3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
 - 4.3.1 내부의 속성을 보조하는 외부공간 구성
 - 4.3.2 외적인 속성을 수용하는 내부공간 구성
- 4.4 소결

4장에서는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선적인 경계에서 인식적 경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부공간에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중점으로 건축과 도시를 연결하는 경계의 연결방식에 따른 전면지층공간의 연결방식을 살펴본다. 사람과 대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식에 의한 내·외부의 소통을 꾀하는 방식을 물리적, 비 물리적 요인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4.1 투명한 경계를 통한 연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면지층공간의 연결방식이 다양해 질 수 있었던 데에는 유리라는 재료의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리가 가진 투명성은 내부를 투과하고 동시에 외부를 반사하며 거리감에 대한 시각적인 교란을 유발한다. 물리적 경계가 유리로 대체되면서 얻게 된 인식적 경계의 형성은 투명성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유리와 빛의 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기에 빛 역시 연속적인 감각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의 입면에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물 [그림 4-1] 투명성에 의한 중간영역의 연결리적 경계가 약화되고 시각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게 된다. 시각 외의 감각이 차단되어 있기에 인식적인 거리감과 경계를 형성하게 되나 이는 근접성에 의해 공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물리적 경계 너머의 대상과 관계 맺음으로써 극복된다. 이로써 중간영역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내부의 대상에 의해 형성된다. 투명한 경계를 중심으로 내부에 외부를 연상시키는 요소를 두거나, 지층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외부로 드러나게 하는 공간의 사용은 내부와 외부 양측에서 감각적인 연속성을 유발한다. 투명한 경계는 외부와 내부 사이에서 이들을 시각적으로 매개함으로써 내부공간에 대한 압축적인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성을 수단으로 한 중간영역의 확장은 외부감각을 내부화하거나 내부의 감각을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가능하며 이때에 이러한 감각을 유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그 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1.1 외부를 연상시키는 내부공간 구성

아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은 공과 사 사이의 전례가 없는 경계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부성의 외부화’이다. 친밀성의 측면과 공공적 측면 사이에는 아직 탐구되지 않은 사이공간이 있다. 이런 익숙지 않은 경계는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이고 근본적인 장소를 열 것이다. 40)

도시의 건축화, 가로와 내부화 등 도시의 속성을 수용하는 건축공간은 내부공간이 외부화되는 양상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두 표현이 갖는 미묘한 차이는 전자가 도시의 흐름을 수용하는 방향성을 설명한다면 후자는 건축으로 도시의 바닥을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건축공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함으로써 도시와 건축을 연결하는 전면지층공간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도시의 바닥과 이어지는 건물의 지층공간이 가로화⁴¹⁾ 될 때, 도시의 속성을 갖는 다양한 매개물들은 중간영역을 확장시킨다. 투명한 경계에 의한 시선의 연결은 외부와의 시선을 연결하며 이에 도시의 가로에서 연속되는 홀, 로비와 같은 내부공간이 도시의 가로와 연속된 공간으로 연장되도록 한다.

IT University는 가로를 연상시키는 내부공간을 구성하여 외부공간과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건물은 두동의 강의실과 중앙의 복도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로 튀어나온 양측 볼륨은 내부에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벽이 된다. 유리 벽을 통해 외부로부터 이어지는 내부의 활동이 연속적인 경관을 만들며 가로와 같은 흐름을 만든다. 저층부는 카페, 도서관, 식당등의 공동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상부의 학습공간과 구분되어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그 위로 매달린 상부의 매스들은 다양한 규모의 모임을 수용하는 실들로 불규칙적인 볼륨감을 형성하며 건물의 방향성에 더욱 역동감을 부여한다. 양측의 진입방향으로 열려있는 볼륨의 면에 의해 내부의 여러 상황들이 불규칙한 이미지를 만들며 시선을 유도하고 복도를 향한 면에는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들이 투사되어 마치 전광판을 연상시킨다.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구조물들과 더불어 바닥의 식재와 벤치등은 외부 가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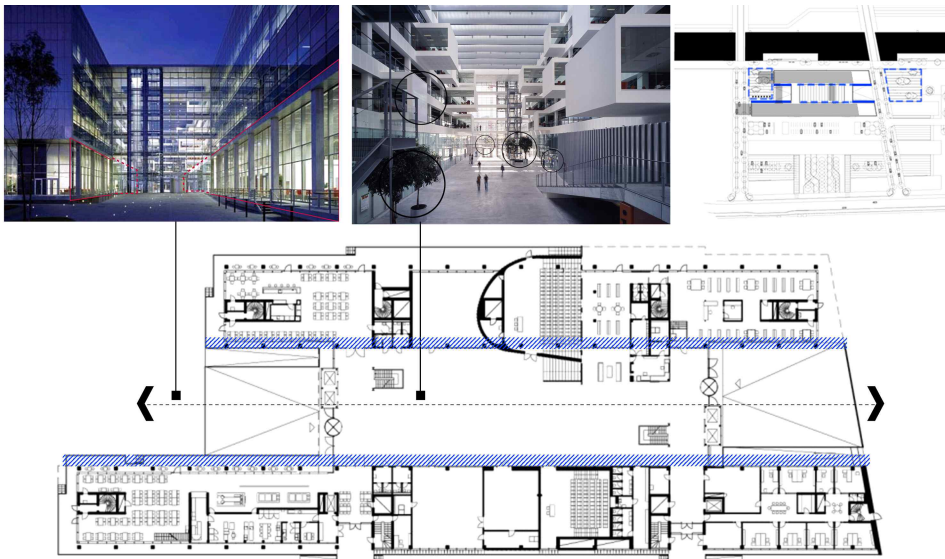
40) Georges Teyssoit, *The Phantom Agora*, 정혜진, 현대 도시건축의 ‘가로와 내부화’에 관한 연구, p40, 재인용

41) 헤르만헤르츠버거는 사회적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건물 내부에서 실제 거리를 모방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건축적 수단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권영민, *Ibid.*, p121

유사한 장면을 연출한다. 아트리움에 의한 자연채광과 높은 층고는 이러한 감각을 강조한다. 지붕의 마감만이 이 공간을 내부로 유지시켜주는 요인일 뿐 중앙 홀에서의 감각은 외부와 다름 아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상 내부에서는 도시의 가로와 유사한 자유로운 이동과 공간의 점유가 일어난다. 대학건물로서 내부는 홀의 기능이 확장되어 교내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광장이자 강당처럼 활용되면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적 유사성에 의해 외부에 있는 듯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특정행위를 지원하는 공간보다는 필요에 따라 전용이 가능한 가구 등의 이동가능한 기물에 의해 각 구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를 연상시키는 매개물들의 역할에 의해 내부에서 외부에 형성된 마당까지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고 중간영역을 연결한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이 내부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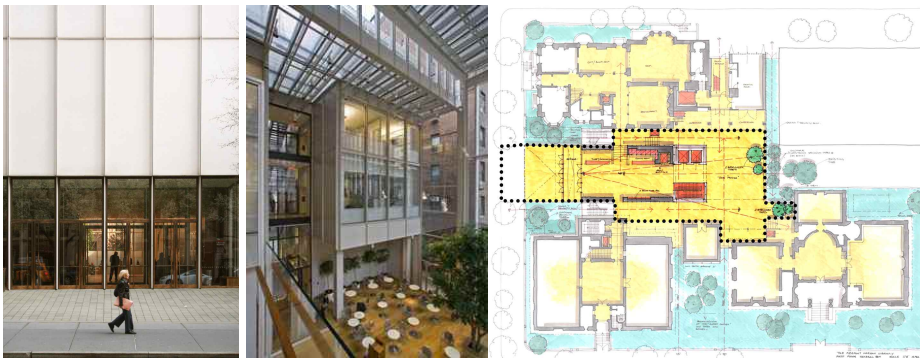


[그림 4-2] 내부공간의 외부화 출처: <http://www.archinnovations.com/>

약화된 물리적 경계와 더불어 내부가 도시적 속성을 띠며 중간영역을 형성하는 사례는 Morgan Library에서도 나타난다.

건물은 입면에 의한 연속적인 가로 흐름에서 뒤로 물러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가로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의해 건물의 진입공간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점유가 발생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대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치에 의해 구성된 전면의 경사로가 가로의 흐름을 구분지어 내부로 전환시키고 상부의 흰색 철재 패널과 저층부의 유리 패널은 재료적인 대조를 이루며 내부 공간을 드러내는 저층부의 시선을 모은다. 이에 외부공간의 바닥 마감재인 정방형의 석재가 줄눈을 조정함으로써 경사로와 더불어 내부의 방향을 지시하는 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내부로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계획요소들은 내부공간에 대한 시선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그림 4-3] 내부로 통과하는 시선/ 외부환경을 연상케 하는 내부공간/ 전면지층공간

방풍실을 거쳐 내부로 진입할 때, 입구에서 보이는 건물 안쪽의 벽에도 유리를 사용하여 가로에서 건물 후면까지 시선의 흐름이 통과된다. 이 때 이러한 시선의 흐름은 내부의 벽에 의해 더욱 유도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두운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내부 중앙의 밝은 공간으로 시선을 모으고 후면의 정원에 심은 나무들이 가로와 연속인 시각적인 연결성을 형성하고 있다. 낮은 가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유리벽 너머로 드러나는 상부 매스의 바닥면과 시선을 통과시키는 유리면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방향성을 강조하면서 마치 이면도로로 통하는 통과영역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도시공간에서의 접근에 대응하여 내부의 홀은 외부공간이 연속된 듯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홀을 중심으로 한 내부 볼륨이 만드는 볼륨 아래의 공간과 야외 테라스를 연상하게 하는 테이블, 의자, 벤치 등의 가구배치, 후면의 정원과 내부의 식재의 연속성, 그리고 유리창과 상부 아트리움을 통해 들어오는 충분한 자연채광은 외부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용자에게 광장⁴²⁾과 같은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내부 공간의 구성상, 세 영역을 연결하는 중앙 홀

42) “The idea of the central court came to me as I thought about the ways piazzas function in the Renaissance towns of Italy.” Renzo piano

은 외부로부터, 그리고 각 영역으로부터 여러 동선이 중첩되어 사람들이 모이고 분산되는 거점으로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부공간과 외부환경의 중첩된 이미지는 외부공간에서 인식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며 이 요소들은 흐름에 따라 내부의 다른 요소들과 연동되어 내부에서도 외부 공간으로의 연상을 일으켜 중간영역을 확장시킨다. 내부의 홀은 외부공간과의 환경적 유사성을 만드는 매개물들에 의해 시각적, 공간적 개방감을 형성함으로써 확장된 중간영역이 된다.

4.1.2 근접성에 의한 내부 활동의 투과

벤츄리는 복합성과 대립성에서 건물의 파사드는 주변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나타내고 파사드는 외부에서 내부로, 반대로 파사드 배후의 부분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여 설계된다고 말한바 있다. 그는 내부와 외부라는 다른 공간 간의 접점으로 벽에 주목하였으며 나아가 공간, 용도의 요구가 충돌하는 내부와 외부의 접점에서 건축이 형성된다고 하였다.⁴³⁾ 엄연히 구분되는 내부와 외부의 상이함이 나타나는 변화의 지점으로서 경계가 건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장이라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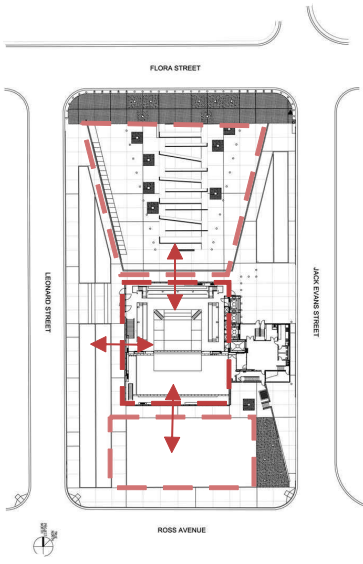
내부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근대 이전의 경계요소인 벽은 유리로 대체되면서 벤츄리가 말한 건축적 사건은 내·외부의 이미지가 중첩됨에 따라 공간에 대한 연속성으로 나타난다. 내·외부가 전환되는 중간영역은 단지 유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활동을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유도한다.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도시에서 집단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무엇보다 도시와 같이 구성되며, 도시에 대한 기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내의 도시적 구성을 외부에서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바⁴⁴⁾ 있는데 유리의 투명성을 활용함으로써 내부를 시각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지각적인 연결까지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물리적인 경계의 약화는 대상과의 인식적 연결이 양방향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유리의 투과되는 성질은 외부공간, 내부공간을 유리벽에 투사하며 공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유리의 속성에 의해 증폭되는 내·외부의 시지각적 연결은 근접성을 확보함에 따라 인식적 경계마저 해체한다. 이는 내부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내·외부를 동등한

43) 임창복 역, 로버트벤츄리,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동녘, p151-190

그는 건물의 내부공간이 외부의 형태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근대건축 사조에 반대한다.

44) 권영민, Ibid, p120

관계로 전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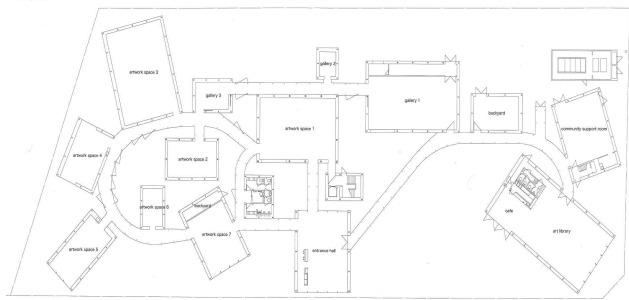
[그림 4-4]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매개



[그림 4-5] 공연장의 외부 확장 개념/ 환경으로의 융화 / 외부공간의 투과, Dee and Charles wyly Theater
출처: <http://www.rex-ny.com/work/wyly-theatre/>

Dee and Charles wyly Theater은 내부공간을 외부로 개방하고자 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전형적인 극장은 폐쇄적인 무대공간을 중심으로 로비, 매표소, 무대 뒤의 대기 공간 등이 둘러싸고 있는 구성을 하는데 반해 무대와 객석외의 보조공간을 수직적으로 배치하면서 건물의 지층면은 무대로 활용하고 건물의 전면을 도시로 노출하고 있다. 건축가는 건물 저층부의 공연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새롭게 해석하여 유리로 된 외피를 통해 마치 극장의 장막이 걷힌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무대공간을 둘러싼 객석은 외부로 영역을 확장한다. 그림 4-5의 단면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러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상부매스로부터 투명하게 구분된 저층부의 입면이 내부의 조명에 반응하여 내부의 활동을 드러냄으로써 공간의 확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높은 층고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공간과 같은 공간감을 갖는 내부공간은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주변의 환경에 융화되며,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북측의 경사를 갖는 광장은 도시의 흐름을 수용하고 동시에 지하공간의 로비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바닥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내부적 연결로 저층부에서 수용한 흐름을 공간으로 전환하

여 수용하고 있다. 주요한 대기공간을 저층부에 둬으로써 경사로로 이에 지층부는 사방에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중심을 가지는 공간구성과 동시에 이를 드러내는 투명성에 의해 외부로 확장



[그림 4-6] 자율적인 배치와 전시실의 개별 연결/
Towada art center

되는 양상을 갖는다. 이에 외부로 개방된 지하의 로비공간과 외부광장, 무대공간은 전면지층공간으로 해석되며 건축물에 의해 형성된 바닥이 시각적으로 개방될뿐 만 아니라 도시의 바닥과 의도된 공간적 연속성에 의해 연결됨으로써 외부공간에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설계 의도에 따라 내·외부의 공간은 서로의 배경이 되며 상보적으로 존재한다. 앞선 사례는 전면이 모두 개방되는 성격을 가지며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속된 전면지층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례였다. 사례를 통해 투명성을 이용하여 내·외부를 상호 관입시키고 바닥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면지층공간에 의해 오브제적인 건물과 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owada art center는 매스가 대지에 흩어져 있고 각각의 전시공간이 복도를 중심으로 모두 다른 방향성을 가지며 외부와 접촉한다. 이러한 배치는 자율적인 흐름을 유도하며 건물의 분절을 통해 사이공간을 형성하고 자유로운 동선을 형성한다. 16개의 파빌리온은 각각 다른 크기와 층고를 가지고 있으며 전시물과 1:1로 대응하는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분절된 각 전시실들은 가로로 향해 여러 방향성을 가지며 세 가지 순환을 갖는 전시공간을 연결하는 투명한 복도공간이 네 개의 내부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이자 커뮤니티 공간을 갖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그 연속선상에서 외부부를 계획함으로써 기존의 전시공간이 폐쇄적 특징을 가졌던 것에 반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어 중간영역은 가로와 각 실을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외부와 동일한 레벨의 내부바닥은 땅과의 경계를 교묘히 감춰 지형과 건물의 경계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유리로 된 최소화된 벽으로 인



[그림 4-7]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

해 물리적인 경계는 최소화되고 내부의 전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안으로 끌어들이어 내부공간이 확장되는 공간감을 더욱 강조한다. 근접성에 의해 각 내부에서 외부풍경을 이를 매개로 여러 시각적 자극을 노출하며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나아가 시각적인 연결을 넘어서 간접적으로 내부공간을 경험하는 지각적인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ㅍ실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을 전시 배경처럼 활용하고 있어 면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응하여 다른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내부의 활동이 외부공간과 근접성을 획득할 때에 더욱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유발된다. 이에는 연속적인 바닥과 더불어 유리를 통한 시각적인 연결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The hotel은 유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내부로의 시지각적 연결을 유도하는 사례이다. 가로의 레벨에서 1층을 1.2m가량 높이고 지하의 상부 슬라브에 반사되는 유리를 달아 반사되는 속성을 이용하여 내부를 투사하고 가로에서 지상과 지하공간의 활동이 하나의 창을 통해 동시에 보여진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활동이 유리의 반사와 투사를 통해 하나의 입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고 호텔 객실의 천장에 프린트된 이미지를 두고 빛을 투사하여 창 너머로 그 이미지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넣어 가로에서 올려다볼 때 각기 다른 내부공간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각적 연결을 통해 내부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는 마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며 반대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부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장벽은 소거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유리의 속성을 이용하여 가로와 내부공간의 이미지가 중첩 되도록 하여 내 외부의 경계를 소멸시켰다.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것 같은 비일상적 경험을 제공한다. 유리의 물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반사, 투과, 투사 등의 효과를 통해 물리적 경계를 인식적 경계로 전환시킨다.



[그림 4-8] 유리를 통한 내부공간의 투과 Hotel Lucerne, 출처: El croquis, Jean Nouvel, 11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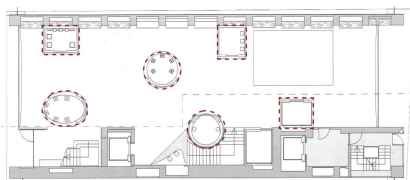
4.1.3 가로에 의한 연결

공간의 개방과 폐쇄와 같은 연결방식은 사람들 간의 만남을 조절한다. 이는 다양한 개구부를 통해 형성되고 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각적 초점이 된다. 건축물은 도시로부터 경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 경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속성과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필로티는 물리적 경계를 없애고 시각적 개방성과 하부에 공적 영역을 형성하며 도시 영역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바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가로에서 접근하는 사용자는 내·외부에서 가로와 같은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내부와 외부의 성격이 겹쳐지는 중간영역으로 전면 지층공간은 내부 공간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건물을 관통하는 가로는 시선적 교차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상부공간을 구성한다.

Nicolas G. Hyek Center에서도 가로와 이면가로를 연결하는 내부 가로를 형성하고 그 사이에 리프트 겸 쇼룸들을 배치하여 수직적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시각적 매개물을 축 방향으로 배치하여 내부로의 지그재그 형태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로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입구공간은 필로티를 통해 3개 층의 높이로 기준층보다 높은 공간감을 만들면서 내부로의 방향성과 개방감을 주어 이를 강조한다. 지층면의 여섯 개의 투명한 볼륨들은 건물 내에 위치한 상점들의 쇼케이스로 각기 다른 층과 바닥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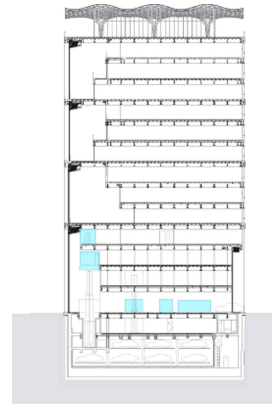
이는 각 층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로의 쇼윈도에서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담당한다. 바닥에서 쇼케이스는 상품이 매개가 되어 일시적인 머무름을 만들며 이 개별적인 노드들은 이동의 흐름을 만드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2m정도의 볼륨들은 내부를 가로 막지 않으며 투명한 유리로 경계지어져 있고 가로의 길을 만들며 흘러져 있다. 임시적인 파빌리온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수시로 수직적인 이동을 하며 각층으로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마치 쇼윈도우와 입구가 내부와



[그림 4-9] 쇼룸/리프트에 의한 내부의 구성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개별의 리프트는 가로와 내부를 잇는 중간영역이 되고 이들은 바닥에 의해 연결된다.

지면층에서 경험하는 영역은 쇼케이스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높이감을 형성하는 상부 슬라브에 의해 방향성이 형성되며 층고에 따른 개방감은 쇼케이스의 배치와 함께 이동의 흐름을 만든다. 따라서 건물의 전면과 후면을 연결하는 공공가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도시의 속성을 흡수하고 동시에 도시로 확장되는 전면지층공간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0] 가로와 연결되는 수직 동선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는 필로티와 유사하게 전면의 벽을 개방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없애고 있다. 이는 회전하는 벽에 의해 6m내외의 내부공간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가로영역에서 그 내부를 경험하게 된다. 내부의 전시 벽이 가로로 튀어나와 보행자와 전시물 간의 우연한 접촉이 발생하는데 각각의 벽이 개별적으로 작동되면서 병렬적으로 경계가 형성되고 이는 이동을 통합하는 가로에 의해, 또는 내부의 공간에 의해 연결된다. 따라서 가로공간을 외부공간처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다층적 경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겠다.

가로와 건물 내부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동선을 구성을 하고 내·외부를 시각적,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벽의 특성에 따라 쇼-윈도와 같이 상품과의 표면적인 접촉이 아니라 그 너머의 공간에 대한 지각에 이르게 된다. 이는 도시의 바닥과 건물 바닥의 경계가 낮고 가변적인 벽의 움직임과 가로의 이동 흐름과 평행하게 진행되는 내부 공간의 모양은 외부의 흐름을 내부로 확장하고 좁은 가로가 만드는 이동의 속도는 건물 내부로의 시선적, 물리적 접근을 유도하며 그 속도를 느슨하게 한다. 필로티와 같이 내·외부를 직접 연결하는 여러 개방면을 통해 자극에 대한 접촉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가로의 흐름에 대응하여 튀어나오고 들어간 벽들의 연쇄가 는 외부의 흐름을 흡수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 그 내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드러낸다.

공간의 깊이는 인접하고 있는 공간과 커를 형성할 때 시각적으로 그 중첩이 만드는 깊이의 공간감을 경험하게 된다.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에 있어 건축공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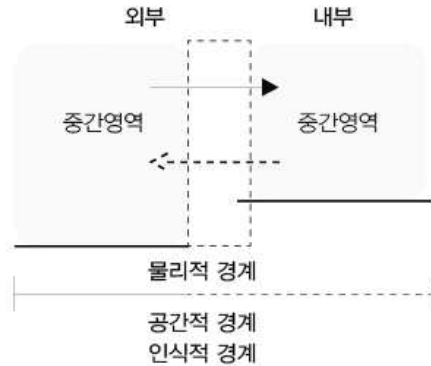
대한 빛의 반응은 공간의 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는 예견된 공간에 대한 암시를 통해 깊이 있는 공간으로의 접근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밝기의 대조를 통해 특정 공간을 강조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료와 만나 재질을 드러냄으로써 촉각적 경험을 유발 한다.



[그림 4-11] 내·외부의 연속성에 의한 공간의 통합.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4.2 다중적 경계를 통한 연결

다중적 경계란 외부와 내부 사이를 연결하는 경계가 중첩되거나 병렬되는 것이다. 앞의 절에서 투명한 경계로서 벽이 주된 매개의 역할을 했다면 바닥의 연속이 주된 매개역할을 하는 경우로, 가로와 내부 사이에 외부공간을 두어 내부로의 일차적인 시각적 접근 이전에 내·외부의 연결을 의도하는 것이다.



[그림 4-12] 재료를 통한 연속된 영역의 인식

내·외부를 가르던 1차적 요소인 벽이 얇아지고 공간화되면서 경사면, 계단에 의해 수용되는 연속적인 도시의 흐름이 건축공간으로 관입된다. 연속적인 바닥의 수용을 의미하는 계단, 램프등은 건물 내부 영역으로의 이동 흐름을 연결하며 이행적 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외부와 내부가 하나의 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성과 다수의 중간영역을 가지며 연결되기도 한다. 이 때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중간영역들은 그들 간의 연쇄를 통해 영역을 확장시킨다.

4.2.1 연속적인 감각을 형성하는 동일한 재료 사용

건축공간에서 경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기본적인 공간 구획 요소인 기둥, 벽의 구성뿐만 아니라 빛, 색채, 형태, 질감 등의 요인이 작용하며 이로부터 공간의 차이가 현재 공간과 다른 내부적 공간을 인식하게 한다.⁴⁵⁾

Jussieu Atrium은 가로에서 내부의 홀까지 동일한 색의 바닥면이 이어져 공간의 연속성을 가지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가로로부터 상대적으로 내부의 영역임을 드러내면서도 건물 폭의 반을 계단영역으로 할애하면서 가로의 흐름을 내부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계단과 경사로를 오르는 신체적 움직임과 더불어 시야에 나타나는 장면의 변화는 상부의 개방된 마당에 의해 외부

45) Herman Hertzberger, Herman Hertzberger: 1959-1990, a+u Publishing, 1991

로의 이동흐름을 만든다. 동시에 계단에서 시작되는 동일한 표면의 연속에 의해 형성되는 영역은 가로에서 중정을 지나 내부의 홀까지 이어진다. 최초의 계단을 지나 만나게 되는 내부공간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색의 바닥면과 기둥에 의한 영역이 내부에까지 침투하여 유리에 의한 경계의 구분이 약해진다. 유리벽 너머의 내부공간의 중심에 위치한 홀은 층간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하고 그 이동의 거점을 불규칙하게 하여 수직적 흐름과 수평적인 이동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시각적 접촉이 발생하는 만남의 장이다. 이 내부에까지 이어지는 바닥은 동일한 마감에 의해 외부로부터 연속적인 감각을 불러일으켜 하나의 통합된 영역을 만들고 있다. 연속적인 경계의 감각은 신체의 흐름에 따라 연결되는 내부의 동선을 묶어주는 마감재의 사용에 의해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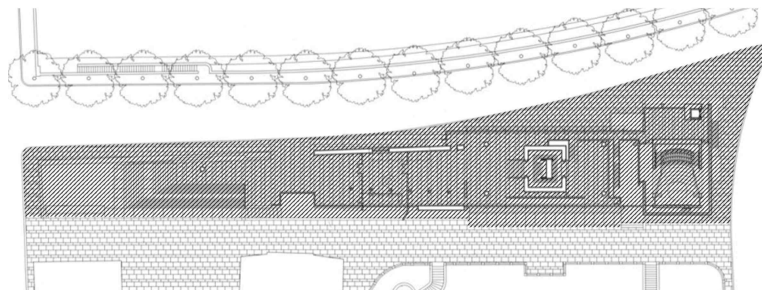
[그림 4-13] 바닥의 연속성 및 영역의 가시화, Atrium, Campus de Jussieu

이러한 다층적인 경계를 연결하면서 연속적인 공간의 감각을 제공하는 전면지층 공간의 사용은 Ara Pacis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내·외부의 바닥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동일위계의 공간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Ara Pacis Museum은 지형을 그대로 수용하여 계단으로 연결하면서 가로에서의 접근을 수용한다. 동시에 레벨차를 이용해 내부공간으로의 접근 동선과 전면의 공공공간에 대한 축을 교차시켜 상하 움직임과 방향 전환을 유도하여 내부로의 전이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가로에서 계단, 마당으로 각각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계점에서의 불연속은 연속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연결되고 있다. 진입부에 조성된 공간에 사용된 재료가 내부공간에도 사용됨으로써 중간영역이 내부공간에 까지 확장되는 효과를 갖는다. 내부에서의 흐름은 가로 축과 평행하게 이루어지고 대지의 레벨차로 인하여 북측가로에서 접근하는 동선은 내부공간과 동일한 레벨을 하고 있어 내·외부에서의 움직임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동시에 일어난다. 재료에 의한 연속적인 감각은 다른 재료와의 대조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내부공간을 둘러싼 육중한 면들이 모서리를 열어 완결한 내부공간을 만들기보다

는 불완전하게 열린 상태를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속된 바닥면이 드러난다. 또한 재료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트리움과 커튼월에서 들이는 빛이 공간에 확장감을 주고 측면에서 역시 외부공간과 동일한 레벨의 내부공간이 가로로 연결하고 있어 외부사람들과의 시선적 조우를 통해 연속된 바닥임을 감지하게 된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방향성을 가진 건물 내부의 투명성에 의해 동일한 재료에 의해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조된다. 내부의 벤치역시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바닥이 갖는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4-14] 동일한 바닥재 사용, Ara Pacis Museum



[그림 4-15] 가로에서 건물 내부에까지 연속되는 바닥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이행공간에서의 경험을 재료를 매개로 하여 연속적인 감각으로 연결함으로써 가로와 내부 사이의 외부공간에서의 경험을 내부에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투명한 경계를 갖는 건물에서는 시각적 연결에 의한 간접적인 내부공간의 체험과 외부공간을 연상케 하는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구성을 하였다면 레벨 변화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이행의 과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연속적인 바닥을 강조하여 연속적인 공간감을 의도한다.

Caixa Forum 는 재료와 공간을 만드는 형태에 의한 간접적 연결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저층부의 천장에 사용한 재료는 계단실과 계단 바닥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어 내부에서 외부의 확장이자 연속성을 드러낸다. 외부의 머무는 행위에 대응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부를 개방하고 재료를 통해 내·외부의 연속성을 꾀하였다.



[그림 4-16] 마당 연장/ 바닥과 천장면의 결합/ 내부바닥으로의 연장, Caixa Forum

저층부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공간이자 세 마당을 연결하는 공적 영역인 가로로 기능한다. 전면의 소규모 광장과 연속성을 가지며 후면으로도 작은 마당들이 조성되어있어 이를 가로지르는 내부 가로는 생기며 이 흐름은 내부자의 흐름과 중첩되어 다양한 접촉을 만든다. 대로를 지나 맞은편의 블록과 신호등으로 연결되어 지리적으로 다양한 동선이 겹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전면광장은 미술관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이 지역의 광장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모은다.

건축가는 미술관이라는 용도가 갖는 공공공간의 역할뿐만 아니라 목적을 갖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기를 의도하였다.⁴⁶⁾ 전면에 광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층부에 가로를 연장하여 공공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입면에 사용된 재료와 달리 반사되는 어두운 재료를 사용하여 다각으로 꺾인 천장면을 구성한다. 건물 앞에 형성된 마당은 가로에서 점차 상승하는 경사를 가지기 때문에 가로에서 전시공간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터된 공간의 천장으로 시선이 닿게 된다. 빛에 대한 반응을 통해 건물이 부유하는 느낌을 통해 저층부를 강조하였다. 천장면에 의해 영역성을 갖게 되는 저층부는 빈 공간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파사드와 같이 하나의 표면을 이루며 외부의 빛에 의해 반응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성을 표현한다.

공간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특정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반 외부공간을 제공하여 이동이나 대기,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건물의 전면(前面)에 배치된 마당에서부터 이어지는 바닥면은 벤치 등의 시설을 통

46) El Croquis 129-130: Herzog & De Meuron, p338-339

해 고정적인 행위를 지원하고 더불어 자유로운 점유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밝은 외부공간의 빛이 내부화된 가로 방향성을 지시하는 요인이 되며 진입공간이자 가로의 성격을 갖는 중간영역으로 흐름의 교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5mm의 얇은 철판이 상부의 벽돌매스와 지층공간을 또렷이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재료는 계단실에서 내부의 바닥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분리된 상하부를 연결하고 있다. 요동치는 표면의 효과가 계단에서도 일어나면서 지층면에서의 공간감을 내부로 이끌고 있다.

정면에서 보이는 2층의 창은 무거워 보이는 벽돌의 표면 일부를 뚫어 외부를 조망하는 창을 두었다. 이 창을 통해 드러나는 내부공간의 빛은 명확한 경계선으로 분리된 지층면과 상층부를 연결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⁴⁷⁾천장의 반사효과를 위한 조명과 상부로 연결하는 계단실의 노란 빛의 조명은 자연채광에 의해 하얗게 드러나는 면과 구분되는 영역성을 띠며 벽돌, 석재, 철판의 딱딱하고 무거운 재료로 마감된 공간의 내부를 관통하여 연결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준다. 이는 가로를 연결하는 것뿐 만 아니라 외부공간의 바닥과 상부를 잇는 패턴의 유사성과 빛이라는 물질은 내·외부를 연결하고, 외부 가로와 건물의 지층면은 경계 없는 도시의 바닥으로 연결된다.



[그림 4-17] 빛을 통한 연결

4.2.2 교차공간의 삼입

가로와 건물의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중간영역은 물리적 투명성에 의해 시각적으로 연결되나 인식적인 경계는 여전히 내·외부의 거리감을 형성한다. 이를 연속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내부와 외부 사이에 새로운 외부공간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내부와 연계된 공간을

47) The Plan, No.26,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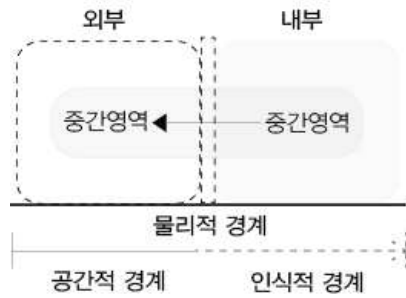
‘The decorative effect of the delicate, watermark-like patterns on the perforated panels covering the windows recalls the Mudéjar style, not least for the way they filter natural and artificial light and the views they provide from inside and out.’

삽입함으로써 현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으로 유리를 매개로 새로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여 중간영역을 확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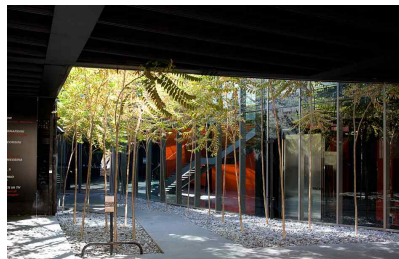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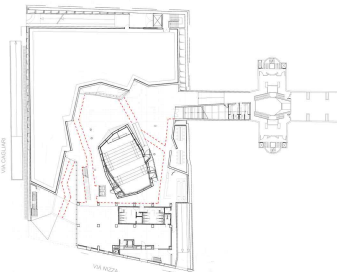
내부공간과 연계된 외부공간의 구성은 단계적인 접근을 염두하여 내부와 외부공간 사이에 교차공간을 둔 경우이다. 이 때 내(외)부공간과 연계된 요소를 통해 내부로부터 외부로 연상케 하고 외부로부터 내부를 연상케 하면서 물리적으로 구분된 영역 간에 공간적인

연속성을 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점진적인 변화는 시각적 연결에 의해 앞으로의 공간을 예상하게 하고 동시에 가로-옥외공간-내부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MACRO Gallery는 두 개의 가로가 만나는 교점에 위치하여 모서리의 경계를 없애고 내부로 빛을 들이는 마당을 두어 입체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필로티로 떠있는 상부 매스의 입면은 맞은편의 건물을 반사하고 매스의 바닥면은 어두운 재료를 사용하여 중력을 거스르며 떠있는 볼륨을 더욱 강조한다. 상부매스에 의한 그림자는 가로로부터 첫 번째 경계를 만든다. 이 경계를 넘어서 계단과 마당에 의해 내부로 진입하게 되는데 상부의 보이드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는 빛이 내부로 이끄는 바닥 동선에 의한 유입의 흐름을 강조한다. 내부의 홀 중앙의 빨간 매스와 유리벽 가까이 위치한 계단실은 접근과정에서 정적인 요소와 이동의 흐름을 보여주며 이동의 흐름을 만든다. 움직임을 유도하는 바닥의 패턴은 내부공간의 복도, 계단과 형태적 유사성을 띠면서 외부공간에 내부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려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내부공간에서는 상부의 아트리움에 의한 자연광의 연속적인 경험은 광정에서의 흐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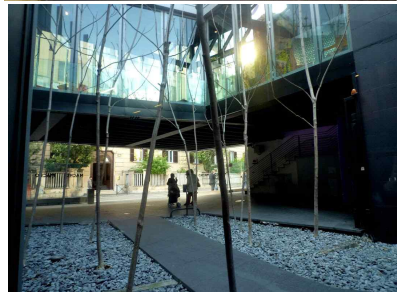
[그림 4-18] 내부공간과 연계된 외부공간 구성



[그림 4-19] 내외부공간의 연계
출처: <http://www.skyscrapercity.com/>

이어간다.

내부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마당은 개방감과 함께 가로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어 중간영역으로서 건축과 도시의 바닥을 연결하며 자연스러운 이행의 경험을 유도한다. 내부에서의 움직임은 외부에까지 이어지고 내부에서 선택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계단, 램프와 더불어 아트리움에 의한 반 외부적 경험은 외부공간을 프레임지우는 상부매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내부적 속성을 가지며 유발된다. 외부와 내부 사이에 이러한 반-외(내)부 공간을 삼입함으로써 가로에서부터 단계적인 접근을 하게 되고 이는 공간적인 깊이감과 더불어 재료적 차원에 의한 매개보다 공간적인 매개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4-20] 내부로의 단계적 진입

또한 기존 논의에서 다루던 도로와 건물 사이의 외부공간에 대한 발전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내부공간과 연계된 외부공간의 구성에 따른 형태적 유사성은 평면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이에 빛이 만드는 감각적 경험의 유사성이 더해져 내·외부의 경계 감각이 모호해 지게 된다.

Musashino Art University Museum & Library 는 책장이 나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공간의 개념에 따라 내·외부가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다. 커들이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겹쳐지는 커와 커 사이의 공간을 유리면으로 하여 내·외부의 시각적 연결을 유도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가는 도서관 전체를 책장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획하였고 내부도 외부도 아닌 공간을 만들고자 의도하였다.



[그림 4-21] 무사시노 대학 도서관 개념도

가로와 내부의 영역을 구분하는 외곽의 커는 벽체와 기둥의 중간속성을 띠며 가로로부터 영역을 구분한다. 지붕으로 덮여있지 않아 그 영역성을 갖되 외부공간으로 구분된다. 이 동일한 커의 반복이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중첩이 깊이감을 형성한다. 내부공간의 구성 역시 머무는 곳, 계단 등도 이와 같은 체계가 적용되어 공간의 덩어리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또한 상부에서의 이동을 외부에서 볼

가로와 내부의 영역을 구분하는 외곽의 커는 벽체와 기둥의 중간속성을 띠며 가로로부터 영역을 구분한다. 지붕으로 덮여있지 않아 그 영역성을 갖되 외부공간으로 구분된다. 이 동일한 커의 반복이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중첩이 깊이감을 형성한다. 내부공간의 구성 역시 머무는 곳, 계단 등도 이와 같은 체계가 적용되어 공간의 덩어리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또한 상부에서의 이동을 외부에서 볼

수 있으며 외곽의 커는 내부와 외부 사이에서 공간의 연속성을 인지하게 하는 요소로 외부에서는 내부와의 연결성을 떠올리게 하고 내부에서는 창밖의 커를 통해 유리를 통한 내·외부의 인지가 아니라 이 둘이 연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있는 매개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림 4-22] Musashino Art University Museum & Library, 동일 구조에 의한 연속성

내부에서 외부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은 천장면에서 떨어지는 빛이다. 스파이럴 형식의 구조 벽과 벽 사이의 틈에서 떨어지며 외부의 프레임에서 열린 지붕면에서와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에 외부공간에서 볼 때 내부로의 경계 감각이 모호해 짐을 알 수 있다.

Library and Senior Citizens' Centre는 바르셀로나의 어잠플레라고 불리는 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정방형에 코너가 잘린 형태의 블록으로 가로로 따라 건물이 연결해 있고 그 중앙에 공통의 마당이나 공공공간이 들어가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도서관이자 주민들을 위한 공적 프로그램에 따라 중앙의 마당을 공공에게 개방하는 배치를 하고 있다.

좁고 긴 형태에서 가운데의 마당을 아우르는 대지의 형태는 건물에 대한 여러 대안이 있었겠지만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이 둘러싸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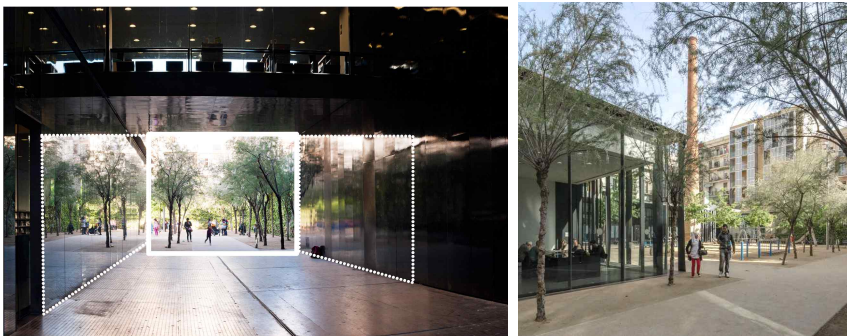


[그림 4-23] 대지의 형상에 의한 가로형태의 건물계획

시 마당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배치였을 것이다. 이에 블록 중앙의 광장으로 접근하는 복도형식의 전면 지층공간은 어둡고 반사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빛에 의해 밝게 드러나는 마당을 강조하고 이를 유리에 반사시켜 실제보다 더 넓은 외부공간의 효과를 만든다. 가로에서 복도형식으로 두동으로 분리된 매스를 잇는 상부의 매스는 그 바닥면이 만드는 어두운 바닥면이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초입의 열람실을 지나 외부공간을 마주하게 되면서 개방감을 느끼게 되고 내부의 시설들을 선택적으로 점유하며 내부의 이용자와 외부인이 함께 어울리게 된다.

마당을 중심에 둔 건물의 배치와 블록의 안쪽에 위치한 마당으로의 접근성을 유도하기 위한 재료로 인한 시각적 효과가 그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연속적인 입면들이 만드는 가로공간에 내부로 열린 건물의 배치는 일시적인 점유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내부로 이끈다.

건물과 광장 사이의 회랑은 내부 동선으로 활용되고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을 유발한다. 또한 이를 둘러싼 벽의 슬릿을 통한 빛이 사람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입면을 만들며 내 외부에 반응한다. 가로와 매부 마당을 둘러싼 건물의 경계는 머물고 이동하는 공간으로 중간영역을 형성하며 행위를 매개로한 내·외부의 연결을 유도한다.



[그림 4-24] 유리입면에 의한 내·외부 경계의 교란

4.2.3 지형화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 도시영역으로 흡수되는 경우 지면의 공간은 공공에게 개방된다. 건축물 자체가 인공적인 땅이 되며 도시의 네트워크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건물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와 연계된 하나의 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랜드스케이프-건축이라 말한다. 이에 내·외부의 관계가 서로 교환되며 건축과 도시를 구분할 수 없다.

La Lira Theatre public domain은 기존의 극장건물이 붕괴된 이후 비어있던 공간을 극장이 가지는 광장과 같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장소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 지면부를 비우고 저층부에 세미나실을 두어 최소한의 기능만을 부여하고 공공에게 개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철판을 둘러쌓아 프레임을 만들어 주거지들의 입면이 만드는 연속성을 따르고, 맞은편의 주거지와 이어지는 다리를 뚫으로써 두 주거지를 연결하고 있다.

지상공간은 측면에 5미터 가량의 홀과 상업공간으로 솔리드한 면을 가지며 외의 공간은 도시로 개방되어있고 지하의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행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도시 속의 광장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공간으로 접근하는 계단실은 오른쪽의 유리벽 안에 있어 근접하지 않으면 주변의 환경을 반사하기 때문에 내부의 공간에 대한 인지되지 않으나 다른 면들과 달리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다리도 유리면에 가까이 치우쳐져 배치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유리 벽 쪽으로 접근을 의도하면서 하부 공간에 대한 의식을 유도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뒤의 건물들을 투과하여 통과의 흐름을 만드는 지층면의 공간 구성은 내부공간으로의 틈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는 외부공간에서 건물의 첫 경계면이 없기 때문이다. 매끈한 입면은 내부공간보다 외부의 광장을 독립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림 4-25] 이동의 흐름을 만드는 공간 구성

개방된 공간이지만 내부의 영역성을 갖는 공간은 건물을 통과하는 이동의 흐름을 만드는 바닥에 의해 연결된다. 또한 이 공간에서 바라보는 강 건너의 작은 광장 겸 주차장과 그 뒤의 자연경관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서 있는 공간을 인식하게 한다. 공간은 주변 주거지의 규모를 따르며 하고 오래된 입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거친 철판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식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⁴⁸⁾ 철판과 철판 사이를 떨어뜨려 어두운 철판이 만드는 공간에 자연광이 새어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가로와 연속적이지만 바닥의 영역을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

48) El Croquis, 138, Rcr Architectes 2003-2007, p23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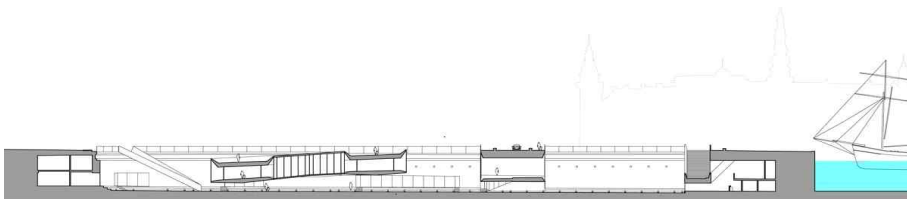
Danish maritime museum는 과거 배를 정박하던 공간을 컨버전하여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기존에 배를 수리하기 위한 구조물이었던 drydock을 볼륨화하고 그 주변을 둘러싸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관을 구성했다. 비어있는 과거 물리적인 경계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면 아래에 미술관을 배치하여 건축이 도시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양상을 갖는다. 배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건조된 부두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지하의 공간이 만드는 경계면에 의해 과거 배의 스케일을 짐작할 수 있



[그림 4-26] Danish maritime museum

게 한다. 중앙의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 지하의 내부공간으로 들어가는 세 개의 경사로는 사용자로 하여금 외부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벽의 단면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경사로를 통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신체적 움직임은 주변의 경관이 연속적인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감각을 변화시킨다. 경사로 이루어진 진입로의 하부에는 복도형식의 오디토리움을 배치하여 이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지하부의 벽체에 나타나는 과거 장소의 시간성을 경험하도록 하고있다.

폐쇄적인 지하공간이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공간 입면의 유리는 내부에서는 외부의 벽을 통해 지하공간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상대적인 위치 감각을 상기시킨다. 지하의 바닥면과 외부의 공간으로 열린 유리벽은 지상의 건축물에서와 유사한 시각적 풍경을 제공하나 지층면은 기존의 도시 바닥으로서,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다리와 내부공간으로 진입하는 램프에 의해 여러 이동 레이어를 가지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다.



[그림 4-27] 지면 아래에서 브릿지를 활용한 공간 활용, 단면도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에 지면은 온전히 도시의 바닥으로 활용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전면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경계가 없

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는 도시의 영역으로 흡수되어 가늠되지 않는다. 건축과 환경의 이분법이 파괴되어 건물과 도시의 접점으로서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의 바닥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는 땅이 두 개로 갈라진 듯한 형태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기존의 언덕을 파내어 중간에 동선으로 강렬한 축을 삽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는 지면 아래로 흡수되고 건축이 곧 도시의 바닥을 형성하며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된다.

정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건물의 위치는 광장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건물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대지의 바닥은 기존의 지형과 어울려 사람들을 이끄는 광장이자 통로의 기능을 한다. 바닥이 두 지점을 이음으로써 이 가운데의 틈과 양옆의 실내는 거대한 도시공간에 대응하는 구성이 요구된다. 동선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실을 배치하여 갈라진 틈에 의해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틈에 의해 형성되는 축의 방향성은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고 이에 대응하는 실내로의 접근은 세분화된 입구에 의해 연결된다. 이러한 구성은 입구, 순환이라는 논리를 벗어난다.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지 속으로 녹아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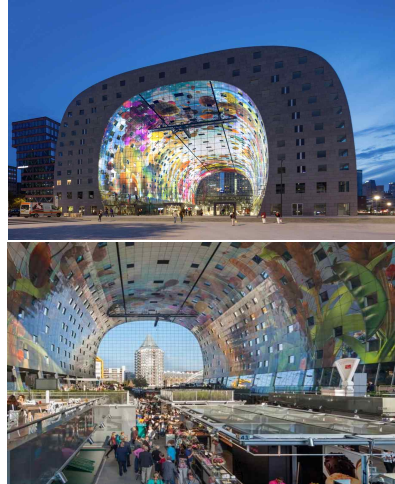
[그림 4-28] 새로운 지형에 의한 내·외부의 관계

바닥은 경사에 의해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제스처를 하고 있고 그 끝에는 계단으로 높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넓은 광장에 머물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한다. 커튼월을 사이에 두고 복도와 계단 등을 두어 외부의 이동의 흐름이 내부에도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수직성이 강조되는 엘리베이터는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연속적인 바닥의 흐름을 만드는 복도와 계단은 외부와의 시선이 교차되며 이동의 흐름을 이어간다. 거대한 흐름을 담는 양측의 커튼월은 내부로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들이고 이에 복도공간에서 연속적인 공간의 경험을 하게 된다.

4.3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

4.3.1 외적인 속성을 수용하는 내부공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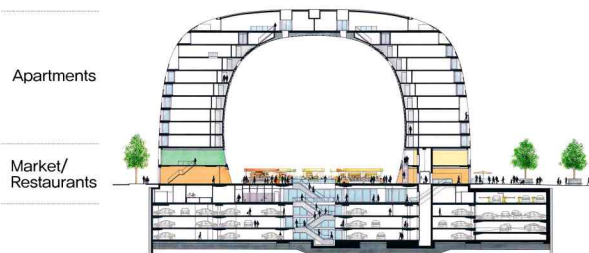
Market hall은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교통시설이 밀집하고 역사적인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법 규제가 바뀔에 따라 위생을 고려하여 내부공간으로 수용된 시장을 요구하게 되면서 저층부는 시장으로, 지상 2층까지 그 밖의 식료품점, 레저, 주차 등 일상적인 상업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그 밀도와 질을 높여 도시의 중심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폭 40m, 35m 높이의 건물은 단일유리 입면을 하고 있으며 솔리드한 말굽형의 볼륨 사이에 투명한 보이드를 강조하여 내부로의 강한 흡입력을 갖는다. 내부의 마



[그림 4-29] 도시적 속성의 내부화
출처: <http://www.mvrdv.nl/projects/markethall/gallery.html>

켓은 높은 층고와 더불어 자연광을 유입하는 큰 유리벽은 내부화된 공간이라는 인식을 잇을 정도로 가로와 시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다. 내부에 복도를 만들면서 이어져 있는 마켓들의 행렬과 사람들의 복잡한 움직임이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없앤다. 또한 중앙의 홀은 낮에는 시장으로 밤에는 레스토랑의 홀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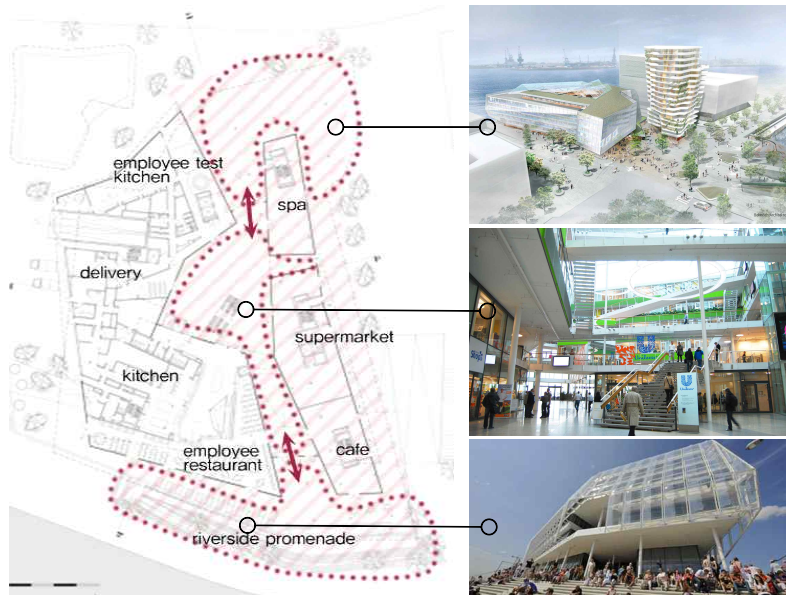
건물 내부의 입면에는 화려한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빛을 통해 이를 반사하면서 내부 공간으로 시선을 이끈다. 낮에는 건물의 장방형 양단의 유리입면을 통해 주변 환경의 모습이 통과되어 경계면의 존재를 상쇄시키고 밤에는 조명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부의 이미지가 내부공간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러한 효과로 얇은 유리벽의 경계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내부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입면의 마감재와 바닥재에 동일한 회색색조를 사용하여 다른 면의 변화



[그림 4-30] 마켓과 주거의 결합
출처: <http://www.mvrdv.nl/projects/markethall/gallery.html>

를 최소화 하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⁴⁹⁾ 저층부를 적극적으로 외부공간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장치들은 기존의 주거가 갖는 폐쇄적인 영역을 도시와 매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개방함으로써 외부와 소통하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낸다. 단면으로는 유리벽으로 통로를 형성하고 장면으로는 주거를 위한 발코니와 저층부의 상가로 내부의 보이드를 둘러싼 주거영역의 발코니들이 입면을 만든다. 또한 120m 폭의 측면에서는 가로에 대응하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활발한 점유가 일어나고 주거영역으로 진입 가능한 6개의 출입구가 배치되어 있어 사방에서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로 대조되는 프로그램이 접합되면서 전면지층공간은 외부를 향하여 열리고 내부의 프로그램이 외부에까지 확장되어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Unilever Headquarters Germany은 지리적 환경을 수용하는 전면지층공간의 계획을 볼 수 있다. 건물은 강변에 위치하여 강과 도시를 잇고 있다. 따라서 건물은 강을 향한 축을 설정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내·외부의 연계를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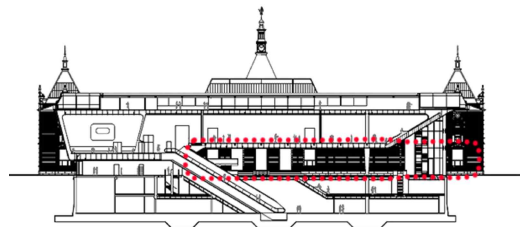
철골프레임과 덧대어진 단층유리를 사용한 상부의 매스는 안쪽으로 들어간 저층부의 매스와 대조를 이루며 부각된다. 건물의 저층부는 본사의 상품을 판매, 전시

49) <http://www.e-architect.co.uk/rotterdam/market-hall-in-rotterdam>

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 홍보의 기능을 담당하고 카페, 스파 등 주민을 위한 공적 영역으로 측면의 출입구에서 개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내부로 연결되는 부출입구에서의 접근은 중앙 홀과 교차되어 내부인과 외부인이 만나는 장이된다. 중앙의 아트리움은 자연채광을 들이며 밝은 내부와 이를 통과하는 야외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저층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부의 동선이 겹치는 공간으로 다층적인 시선의 접촉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동쪽에 길게 배치된 공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간들이며 이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내부로의 수직적인 움직임과 교차되는 수평적인 흐름을 조작한다. 이에 중앙의 홀을 둘러싼 상부의 복도는 회의공간이자, 카페테리아, 휴게 공간 등으로 저층부의 공적인 성격에 대응하여 다양한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보편적으로 폐쇄적인 속성을 갖는 업무공간에 개방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에 외부와 내부는 공적성격의 프로그램을 삽입함으로써 사성을 약화시켜 지층공간으로 중간영역이 확장되고 내부의 공간을 외부화하면서 도시와 연결한다.

Stedelijk Museum Amsterdam는 유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공간 구성을 통해 내부의 영역을 외부로 드러낸다. 이 공간은 지상과 지하의 새로운 전시공간으로의 진입을 돕고 사람들의 접근을 수용하는 홀과 레스토랑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노베이션을 통해 건물의 전면공간을 확장하면서 과거 건물의 입면과 새로 확장된 유리 입면이 중첩된다. 이에 상부의 육중한 매스는 얇은 유리의 비구조적인 투명성을 강조하며 경계를 무력화시킨다. 그림 43에서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는 내부와 외부의 물리적 경계를 관통하는 가구 배치를 통해 이를 이러한 공간의 성격을 드러낸다. 내부공간과 명암의 대비를 이루는 기존 건물의 벽체와 유리벽, 그리고 조명에 의해 부유하는 상부 매스, 내·외부를 관통하는 가구 등의 요소들은 모두 건축과 도시의 속성을 겹치며 중간영역을 형성한다. 투명성에 의한 내부공간에의 시각적 연결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공간을 외부로 드러낸다.



[그림 4-32] 상부매스와 하부공간의 대조

먼저 내부와 외부의 가구배치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마

치 공간이 개방되어있는 듯한 효과를 줌으로써 외부의 노천카페와 같은 넓은 공간을 제시한다. 건물과 근접성이 확보되는 가로 환경에서 명확한 내부로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경계인 유리벽을 끼고 형성되는 전면지층 공간은 이미지와 이를 강조하기 위한 내부공간의 어두운 재료 선택은 상호적으로 작용한다. 유리벽과 내부의 슬리드한 재료가 중첩되면서 유리가 가진 물리적 면이 사라지게 되고 외부와 내부의 대비가 강해 그 사이 틈의 공간은 이행과정으로 외부와 내부의 중간적 성질을 갖는다. 기존의 폐쇄된 건물이 내부의 영역에 한정된 전시기능을 제공했다면 건물이 확장되면서 새롭게 구성된 공간은 기존 건물의 홀을 확장하고 이에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레스토랑과 판매 공간을 드러내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4-33] 내·외부 감각의 교란

이질적인 프로그램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계의 확장은 내부에 공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외부와 매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구분하여 파사드 밖의 외부공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면 이러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적이지는 않으나 상업시설등의 외부 프로그램이 접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내부의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내부로 외부의 공적인 속성을 유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외부와 교류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내부의 공간 구조와 연계된 구획을 통해 도시와 건축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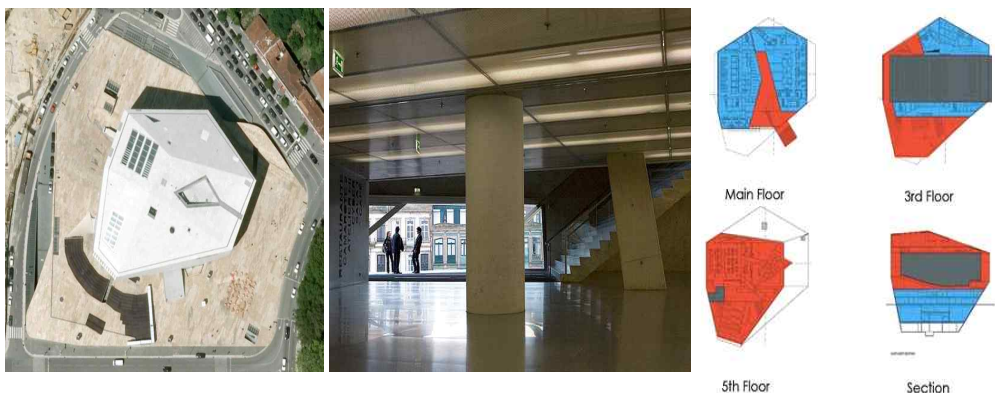
4.3.2 내부의 속성을 보조하는 외부공간 구성

건물이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는 경우에 외부공간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일정 규모를 가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물들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하는 밀도 높은 공간의 특성상 외부의 공지를 활용하며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부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대규모의 건물은 그만큼

오브제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그 밖의 공간은 도시로 비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시와 연계된 전면지층공간의 계획을 함으로써 그 규모에 따라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공공을 향해 비워진 건물의 외부공간은 내부의 프로그램과 연계됨에 따라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면서 내부의 사용에 영향을 받아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연속적인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Casa da Musica는 보도와 건물의 외부공간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공적공간으로 영역을 구획하였다. 대지의 중간에 건물을 배치하여 가로와 면한 외부공간은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을 수용한다. 일부 바닥은 보도에 까지 동일한 바닥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와 구분되는 영역성을 드러내고 가로 레벨과 인공대지의 레벨이 복합된다. 인공대지가 만드는 바닥의 곡면은 가로와 물리적인 바닥을 연결하면서도 재료를 통해 구분짓고 동일면 내에서 경사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네면 개방된 대지와 다각형의 건물은 특정 방향성을 갖지 않으며 여러 방향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가로와 건물의 외부공간의 성격이 결합된다. 건물 내부로 공적인 접근을 수용하는 동선은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내부로의 입체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면에서 건물내부로 진입하는 계단은 오브제적인 건물에 2층으로 진입하는 계단은 슬리드한 면과 대조적으로 드러나며 밤에는 계단에 조명을 쏘면서 내부의 조명에 의해 밝게 빛나는 내부와 연결되어 역으로 2층 홀이 외부로 확장되는 듯한 연속성을 갖는다. 음악당이자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외부공간은 내부 프로그램과 연계된 여러 활동을 수용한다. 지면으로부터 이어지는 바닥면의 곡면과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외부공연 등의 이벤트가 일어난다. 그림34에서 각 면이 모두 다른 건물의 입면 중에서도 아래로 갈수록 좁게



[그림 4-34] 도시바닥의 형성, 내부 홀, 파랑-사적영역/빨강-공적영역/회색-접점, Casa da Musica

각여진 면과 그 면에서 언덕으로 이어지는 굴곡진 외부공간의 바다, 내부공간을 드러내는 유리면이 만나 무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내부의 공연장과 더불어 외부의 공연공간으로 계획된 것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고려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외부의 흐름은 내부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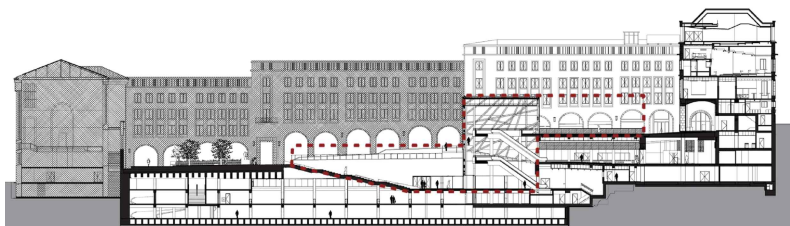


[그림 4-35] 공연공간으로 활용

이어진다. 홀이 2층에 있어 외부광장에서 직통계단이 공공의 성격을 가지며 건물의 2층까지 그 성격이 연장된다. 건물의 중앙에 삽입된 오디토리움을 중심으로 그 아래로는 음악가들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어있으며 그 위로 레스토랑, 테라스 등 일반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다. 계단을 통해 들어오는 공적인 동선을 수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상부에 배치하면서 전면 지층공간이자 공적영역이 내부에 흡수되어 건물 내부에서도 다양한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공적 가로외의 흐름이 내부로 이어져 내부의 동선과 넓은 내부의 홀들은 중간영역의 역할을 하며 다층적인 경계를 형성한다.

프로그램은 자체의 성격뿐만 외부공간과의 통합적인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때 외부공간은 가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내·외부의 통합적인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갖게 된다.

Square-brussels meeting centre는 52,000m²에 달하는 지하의 회의 및 전시공간으로 이에 진입공간을 정육면체의 투명한 매스로 하여 시각적인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지 조형적인 어휘로 입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외부의 강당의 형태로 지면과 지하의 내부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투명한 유리 박스는 지하로의 계단이 띠처럼 둘러있고 보행자를 위한 통로가 있어 각기 다른 층으로 연결되고 있다. 내부가 지하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리박스를 통해 자연광을 지하에까지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마주하고 형성된 강당형태의 계단을 통해서도 내부로의 적극적인 이동과 채광을 꾀하고 있다.



[그림 4-36] 두 레벨을 연결하는 입구공간
출처: C3, no.315, p.204-209

문화, 강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은 외부와 내부를 잇는 계단공간에서도 이루어 지는데 그림 35와 같이 투명하고 수직적인 매스는 지하공간의 창이 개방되면서 수직적인 공간감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무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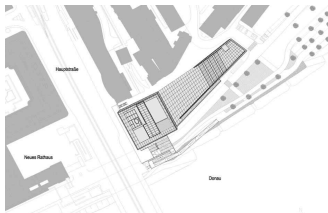


[그림 4-37] Ground event

광장 내에 위치하고 내부를 지하에 조성함으로써 도시공간으로 흡수되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있다. 그 경계에서 이러한 공간의 활용은 도시의 공공공간에도 성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지층공간에서의 이벤트를 통해 사용의 측면에서 건물과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위의 두 사례에서 내부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활동이 외부공간에서도 이루어지며 이는 단지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내부의 사용과 더불어 고려되었기에 건축과 도시의 연계가 사용의 측면에서 그 영역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건물의 공적인 성격이 외부로 극대화되어 확장된 것이며 외부공간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공간이 입구와 연장선을 가지면서 이동을 연계하고 있었다면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외부공간의 활용이 절대적인 경우도 있다.

Ars Electronica Center는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확장된 내부공간으로서 외부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예술, 과학, 기술관련 분야의 총체적인 실험실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체험 중심의 전시공간이다. 이에 건물의 유리 패널로 된 입면 자체는 이들의 연구를 실험하는 장이된다. 기존의 건물에서 지하공간을 확장하면서 생겨난 외부공간은 메인 건물을 바라보는 계단 구조를 하고 있어 무대와 같은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지형을 만드는 내부공간의 계획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내부공간과 계획상에서 연속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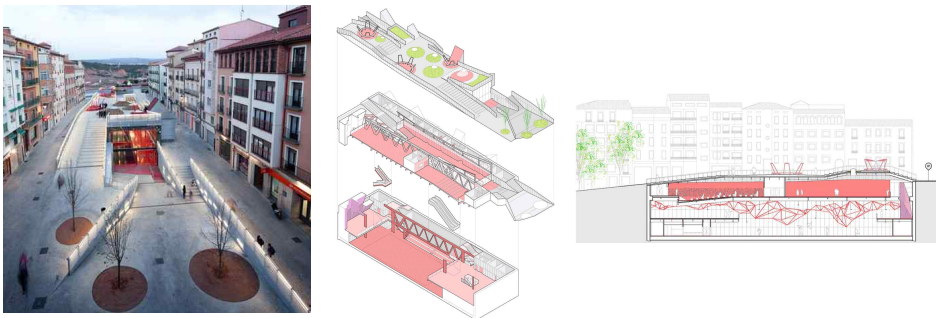


[그림 4-38] 하부 전시공간에 의해 형성된 지형화된 외부마당
출처: <http://www.aec.at/>

[그림 4-39] Media Facade Event
출처: <http://www.mediafacades.eu/>

건물은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맞은편의 건물들에 의해 형성된 가로 of 흐름을 이어 받아 광장처럼 활용된다. 외부 가로에서 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이자 경관을 조망하는 공적 영역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위의 사례가 각 공간이 분절되어 생기는 여러 틈과 매개물에 의한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여 공간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면 Teruel Zilla 는 지하부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여러 동선을 구성하고 있다. 지형과 만나 반 지형으로 흡수되고 가로의 흐름을 따르는 매스에 의해 입체적인 동선을 만들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입체적 경계를 형성하며 지면의 서로 다른 지점을 연결하고 있다. 건물이 반 지하화 되면서 하나의 가로를 다섯갈래로 가르게 된다. 기존에 애매하게 넓었던 가로는 이 건물에 의해 양쪽 건물 앞의 일정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본 건물은 중심에서 여러 교류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의 자연스러운 연결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잇는다. 이에 가로와 이어지는 내부의 지면은 기존의 가로 기능을 하며 양단의 개구부의 빛이 방향성을 지시한다. 내·외부공간의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에 의해 기존의 가로는 수직적으로 그 성격을 입체화하여 깊은 내부공간을 통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바닥면을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은 다양한 접점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물리적 접촉을 경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건물이자 가로가 되면서 더 이상 도시와 건축의 구분은 의미를 상실한다.



[그림 4-40] 도시 가로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입체적 가로의 형성, Teruel Zilla

4.4 소결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공성과 사성,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때에 그 경계는 건축의 내부공간을 중심에 둔 계획에 의해 드러난다고 생각하였다. 즉 내부공간이 확장되어 외피라는 경계를 만든다는 생각이며 이러한 사고는 도시로부터 폐쇄적인 내밀함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물리적 차이를 만든다. 그러나 정보기술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에 대응하는 건축 역시 뚜렷한 물리적 차이를 드러내며 경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내·외부가 연속성을 가지며 경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와 건축의 경계는 이러한 시대변화와 더불어 물리적 요인, 프로그램에 의한 비 물리적인 요인의 변화를 수용한다.

물리적 요인을 통한 내·외부의 연결은 물리적 경계의 약화에 따라 인식적인 경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내·외부를 연결한다. 이는 유리의 투명성을 이용한 벽의 약화와 단계적 공간을 통해 내부에까지 침투한 경계영역에 따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비 물리적인 요인인 프로그램에 의한 전면지층공간의 구성이 있다.

먼저, 투명한 경계에 의한 전면지층공간의 구성은 내부에 외부를 연상시키는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외부와의 도시에서의 공간적 경험을 여러 매개물들을 통해 내부를 가로화한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경계를 사이로 내·외부의 활동, 주변환경과 내·외부가 서로 중첩되면서 인식적 경계를 넘어서 내·외부의 지각적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중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단일한 유리벽에 의한 매개가 아니라 그 경계 영역이 공간화 되어 가로와 내부 사이에 외부공지를 두어 가로-외부공간-내부의 흐름을 만드는 사례이다. 이는 도시에서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내부로 연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리적 방식을 이용한다. 동일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연속성을 가져가거나 내부의 공간과 연계된 물리적 매개물을 통해 전이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단계적 경험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필로티를 통해 내·외부를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하여 내부공간을 지화하 하는 경우는 지층면을 외부로 개방함으로써 도시의 바닥이자 건물의 홀 역할을 하는 공간을 구성한다. 이 공간을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영역화된 공간임을 인지하도록 하면서 개방된 공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에 의한 구성은 가로-외부공간(외적 프로그램)-내부공간, 가로-외부공간(내부 프로그램)-내부공간,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의 외부공간은 외부에서의 활동을 염두해 둔 공간의 구획이 되어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자의 경우 내부에까지 공적인 성격을 끌어들이오는 매개로서 이를 통해 이질적인 두 프로그램이 접합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변적인 공간 구성을 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내부의 작동 원리에 따라 내·외부공간이 연계된 물리적인 환경을 제시하고 있었음을 보았다. 이에 도시와 건축의 경계는 기존의 물리적인 경계과 같이 내 외부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외부화되고 외부가 내부화되는 양방향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 ‘전면지층공간’ 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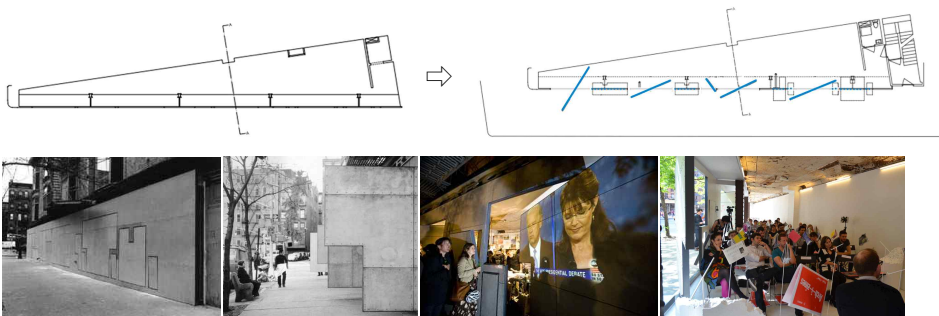
- 5.1 내부공간의 활용에 따라 재해석되는 경계
- 5.2 내부의 형성원리에 따른 통합적 구성
- 5.3 공공성을 고려한 내·외부의 연계를 통한 확장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전면지층공간의 구성에 따른 특성을 살펴본다. 각각 투명한 경계와 다중적 경계에서 나타나는 구성방식들로부터 내·외부를 연결하는 전면지층공간의 특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내·외부가 연속되는 전면지층공간의 계획을 통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건축가의 의도에 의해 계획적으로 구현된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시환경에서도 다양한 매개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밝힌다. 가로와의 경계면에서 다양한 교환활동이 일어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도시경험을 제공하는 배경으로서 전면지층공간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5.1 내부공간의 활용에 의해 재인식되는 경계

물리적인 경계가 약화됨에 따라 도시와 건축의 경계는 인식적 경계의 확장으로 전환되고 이는 나아가 물리적 경계가 소멸되어 혼성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계 변화는 물리적, 비 물리적 요소들에 의해 다층화되는 양상을 띠며 이 과정에서 경계는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연결된다.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규정적인 기능에 근거한 공, 사의 성격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참여에 따라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도시와 건축의 경계를 흐리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로 가변적으로 변화 가능한 공간은 시간에 따라, 사용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에서 가변적인 벽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벽이 되기도, 문이 되기도 한다. 이 가변적인 벽이 닫히면 외부에서는 콘크리트로 된 단단한 경계를 가진 벽처럼 보이지만 개구부들이 개방되면 내부의 전시물들이 드러나면서 경계면이 가진 육중한 무게감과 대조되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실내가 드러난다. 30m의 긴 벽을 통과하는 12개의 개구부는 사용자가 쉽게 벽을 회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보드로 되어 있는데 그 접합 부위는 외관상 콘크리트의 거푸집과 유사하게 처리되어 있어 표면의 효과가 만드는 공간의 효과가 가변적인 벽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공간의 활용에 따라 벽을 닫아 세미나실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모두 다른 크기와 형태의 벽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여 다양한 접촉점을 만든다. 여러 개의 개구부는 다양한 시각적, 물리적 접촉을 만들어 그런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유 가능한 상황이 형성된다. 벽은 이러한 서로 다른 두 환경을 매개하는 장치로 다양한 내부공간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내부공간의 사용에 따라 가로에 까지 공간이 확장되어 내·외부가 통합적인 공간이 되며 내부 전시의 속성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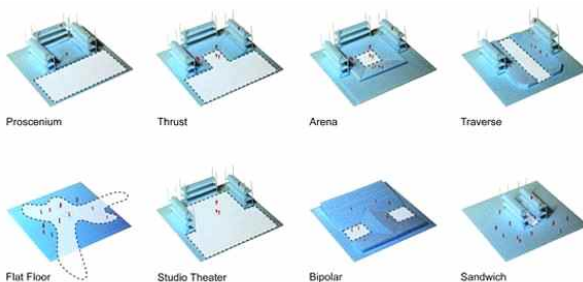
[그림 5-1] 가변적인 벽과 다양한 공간 활용, 경계에서의 양상

폐쇄적인 공간 구성을 할 경우 외부와 구분되는 경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행위 역시 세분화 되고 구체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건축 프로그램 역시 다양해지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더욱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양상을 띤다.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불확정적인 성격에 의해 외부로부터 그 경계가 재해석되기도 한다.

Dee and Charles wily Theater에서 1층의 무대공간의 좌석 배치는 사용되는 무대의 성격에 따라 변화한다. 내부의 좌석은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기울어지거나 앞무대(proscenium)를 형성하기 위해 사라지거나, 경기장과 평면 모형을 밀어내거나 횡단할 수 있다.⁵⁰⁾ 이러한 내부 공간의 사용 변화는 배경이 되는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때에 따라 전면(全面)에서 도시의 환경을 수용하고 동시에 내부의 활동을 드러낸다. 반대로 이를 폐쇄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리 입면 뒤의 블라인드를 작동시켜 일부 혹은 전체를 개, 폐 할 수 있다. 다양한 무대의 활용에 의해 내부 평면의 중심이 변화하고 목적에 따라 유리의 투명성을 조절하여 내부로의 시지각적 경계 영역을 조절한다.

이에 외부에서 인식적인 경계의 확장 범위는 사람들의 행위를 수용하는 내부공간의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가변적으로 입면을 조정함에 외부와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사람들의 점유 가능한 외부공간에서 건물 내부공간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건축의 경계는 재해석된다.



[그림 5-2]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이 가능한 가변적인 평면
출처: <http://www.rex-ny.com/work/wyly-theatre/>



[그림 5-3] 외부에서의 변화

50) <http://www.oma.eu/projects/2009/dee-and-charles-wyly-theater/>

도시의 잠재적인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지층공간의 구성은 외부와 내부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변적인 프로그램, 평면구성에 의해 가능하다.

The Stedelijk Museum의 평면에서와 같이 건물은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없애는 가구 배치를 통해 그 연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평면상에서 우측의 공간은 판매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가구를 통해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열린 평면을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는 상부 볼룸에서 연결된 다리만 바닥에 관계할 뿐 공간을 가구로 구획하여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공간의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부의 가변적 평면에 따라 시간에 의해 여러 프로그램이 수용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을 갖게 된다. 이에 내부공간에서의 움직임은 가로에서와 같이 배회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지층면에서 상부의 전시공간과 지하공간을 잇는 계단실, 에스컬레이터가 내부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광장과 마주하고 있는 건물의 특성상 외부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응하여 내부를 최대한 자유롭게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얇은 유리벽에 의해 그 경계는 최대한 얇게 처리하고 외부와 동일한 바닥면을 사용하면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명성을 매개로한 인식적 경계가 형성되고 시선적 연결을 형성하는 내부의 대상에 따라 물리적 경계가 변화한다. 내부공간이 가변적인 속성을 가짐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연속성을 수용하며 유리를 매개로 내부의 활동을 외부로 드러낸다. 이에 내·외부는 시지각적 연결뿐만 아니라 물리적 경계 역시 새롭게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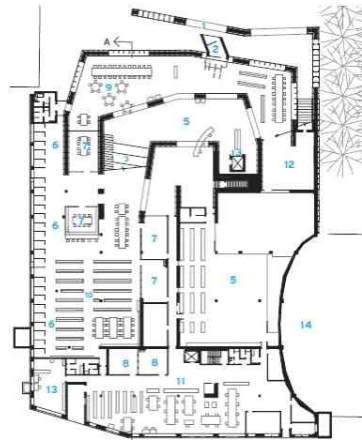


[그림 5-4] 외부화된 내부공간

5.2 내부의 형성원리에 따른 통합적 구성 공간

내부와 외부공간의 연속성은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동위적인 관계로 만든다. 이는 가로로부터 내부로의 일치된 공간적 연속성과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외부와 내부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도시와 유사한 맥락을 갖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물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이를 구현한다.

Musashino library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물의 기본 계획 원리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간 사용으로 책장이라는 기본 유닛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획하였다. 벽이자 바닥을 구성하는 요소로 공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내·외부의 구분이 없는 공간 점유를 염두해 둔 건축가의 의도는 불확정적인 도시의 속성을 내부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내부의 사용자 간에 규정되지 않는 불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마주침이 일어나는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주요한 개념으로 하고 있다.⁵¹⁾ 이러한 개념은 연속적인 나선형의 책장 벽을 통한 공간으로 구현되며 외부로부터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외부를 통합한다.



[그림 5-5] musashino 도서관의 통합적인 공간구조

통합적으로 고려된 공간의 경험은 투명한 입면에 의해 드러나는 내부와 외부의 연속적인 이미지에 의한 시각적 연결과 동일한 재료의 물성, 빛에 의한 감각적 연결이 더해진다. 따라서 도시와 건축의 매개공간은 내부공간과 구분된 외부의 특정 공간(전면공간)이라 할 수 없고 외부의 속성을 부여받아 구현된 내재적인 형성원리에 따른 전면지층공간으로 해석된다.

Nicolas Center에서 저층부를 구성하는 쇼룸들은 상부로 연결되는 리프트의 기능을 한다. 상부의 각기 다른 층의 상점들이 개별적인 엘리베이터를 뚫으로써 좁고 긴 대지의 특성상 수직적으로 적층되는 상부의 매장으로 직접적인 연결을 위한 장치이다. 각층마다 개별적인 리프트를 두어 각 층의 바닥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하부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쇼룸들은 실제 상부의 일부로 가로와 상점을 연결하는

51) Sou Fujumoto, El Croquis 151

문이자 상부 공간의 일부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이는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리프트와 연결되는 상부의 슬라브는 이 형태대로 비워져 있어 사람들의 이용에 의해 수직적인 이동을 통해 완전한 평면을 완성한다. 이는 내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단순한 리프트가



[그림 5-6] 상부층의 일부로서 쇼룸/리프트

아니라 쇼룸으로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며 외부와 내부를 전환시키는 매개체로 각각이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와 하부의 공간을 분리하여 볼 수 없다.

온전한 내부공간은 아니나 반 외부적 공간으로 내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투명한 볼륨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면서 내·외부의 경계를 넘나든다. 가로와 내부의 가시적 경계로서 이는 개방된 내부가로에 의해 도시의 영역으로 포섭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는 내부적 성격을 가지며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의 속성과 내부공간이 갖는 특성이 겹쳐지는 공간으로서 연속적인 공간감을 형성한다.

이렇듯 내·외부를 동일한 개념으로 연계함으로써 경계를 흐리게 하고 이로써 전면지층공간은 외부와 내부의 교환이 일어나는 접경으로서 영역을 형성한다. 선적인 경계를 넘어 공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경계의 전환이 가능하다.

5.3 공공성을 고려한 내·외부의 연계



표 5-1 Figure&Ground 관계 변화

Nolli map은 ‘Solid-Void’ , ‘Figure-Ground’ 의 이분법적 관계를 보여 준다. 검게 칠해진 건물과 이를 둘러싸고 이어져 있는 가로는 흰색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지역의 주요 건축물을 가로의 연장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도해에 대한 경계적 차원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이 백색으로 남겨진 내부 공간(성당)들은 공도 사도 아닌 전위적인(heterotopian) 공간이다. 이 지도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공공간과 전위적 공간 사이에서 요구되는 연결과 부분적인 중첩인 것이다. 전위적인 공간은 반드시 집합적인 공간이거나 공유되는 공간이다.⁵²⁾

도시와 건축의 관계가 상보적임을 생각할 때 선으로 구분된 두 영역의 경계는 공과 사가 상호작용하는 사이공간으로서 이를 동일 평면상에서 고민할 때 그 의미는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전면지층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이기는 하나 위의 그림에서 재해석한 figure&ground는 도시와 건물, 공과 사의 경계가 선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기존의 도해와 같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이에 전면 도시와 건축의 연결을 의미하는 전면지층공간이 도시를 어떻게 수용하

52) Michiel Dehaene and Lieven De Cauter, Heterotopia and the City, 2008, p5-6
 신승수,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0, p76 재인용

느냐에 따라 건축물은 도시와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앞선 사례들에서 내·외부를 연계하는 전면지층공간의 구성을 통해 도시로의 확장 방식을 살펴보았다. 물리적 경계가 약화되면서 모호해진 건물의 외곽선은 내·외부의 유동적인 흐름을 뒷받침 하고 이때의 흐름은 실질적인 이동성을 조절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부여된 공공성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전면지층공간은 유동적인 경계에 의해 도시 영역으로 확장된다.

5.3.1 공공성을 고려한 내·외부의 연계

도시에서 상징적 건물이나 광장, 시장은 중심적인 역할이자 교류의 장소로써 이용되었으나 현대 도시에서는 이러한 중심성을 가지는 공공공간보다 일상적으로 접근이 많이 일어나는 가로공간이 교류가 일어나는 장으로 더욱 주목된다. 53) 따라서 가로를 만드는 건물들의 전면지층공간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의 공적인 속성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물리적인 접근을 잠재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의 공공공간과의 물리적, 비 물리적 연결을 통해 도시와 매개한다. 따라서 유사한 내부의 공간의 구조를 하고 있을지라도 외부가 갖는 공적인 환경에 대응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도시와 건축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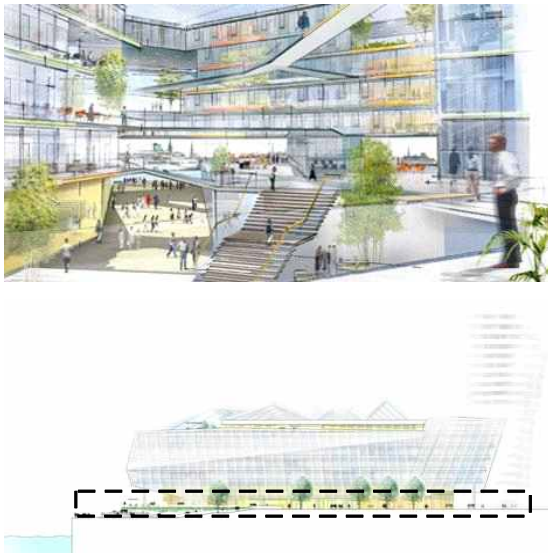
Unilever Headquarters의 경우, 항구 근처에 위치한 환경적 특성에 대응하여 건물은 내부의 도시로부터 강을 향해 확장되는 개방성을 갖는다. 그 끝에는 지형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광장처럼 활용된다. 도시와 강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외부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저층부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유리에 의해 최소한의 경계를 형성하면서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에 내부는 건물 앞의 마당과 강의 산책로를 잇는 가로로 자유로운 점유가 가능한 공적영역의 성격을 가지며 외부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도시로 확장된다.

이와 유사한 내부공간을 하는 사례로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역시 Unilever Headquarters와 유사하게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두동으로 나뉜 매스가

53) 리차드 세넷, 김홍식 역, 장인, 21세기 북스, p364-376

공동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며 중심이 과연 그 다양성을 배합하기에 좋은 장소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중심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가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부에 가로로 형성하고 있다.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도시를 연상시키는 다수의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의 속성이 건축에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저층부와 가로는 연계되지 않고 병치되고 있다. 또한 외부와의 관계도 찾아볼 수가 없어 폐쇄적인 온실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외부에 대응하는 어떠한 제스처어도 없이 공간을 사유화하여 주변 환경과의 연계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내부 완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외부와 연계하는 물리적 경계의 계획과 비 물리적 요인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두사례의 비교를 통해 전면지층공간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으로 주변환경에 대한 고민과 나아가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접근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나아가 이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7] 도시의 바닥으로 확장되는 전면지층공간



[그림 5-8]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내부 아트리움

일상적인 경험의 장으로서 집단적인 삶이 영위되는 이러한 도시 차원의 개방된 공간들은 그 자체로의 인식을 형성하며 장소가 된다. 이러한 외부 환경들은 규정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활동의 무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전유되면서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 따라서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의 공공장소들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유로운 접근성에 따른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장소 역시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특정 기능과 사용자가 부여된 건축물과 결합하면서 성격을 부여받으며 다양한 교류의 장으로서 생산력을 강화된다. 공공장소와 면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지리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내·외부를 매개한다.

기존의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확장할 때에 공공성을 고려하여 전면지층공간을 계획한 사례는 전 후의 변화를 통해 전면지층공간의 계획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공공공간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La Lila Teatro는 기존의 극장이었던 빈 터가 강을 중심으로 분리된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놓고 광장으로 개방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공공공간을 형성한다. 지하부에 기존의 시설을 대체하는 전시, 세미나실을 배치하고 지상을 개방하면서 맞은편의 소광장과 연계되고, 서쪽의 광장까지 연결되는 지역의 주요한 공공공간으로 확장된다. 두 지역을 연계하는 다리는 건물의 계획에서 함께 고려된 부분으로 주변에 2개의 다리가 이미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은 것은 각 지역의 공공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의 거점으로 의미를 확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⁵⁴⁾ 건물의 전면지층공간은 내부의 고정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주변의 광장, 가로와는 구분되면서 동시에 이들을 연결하고 교차되는 통과영역이 된다. 이로부터 기존에 형성되어있던 광장에서의 일상적인 활동들 역시 전면지층공간에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공공성이 더욱 확대된다.



[그림 5-9] Public Space Teatro La Lira, 설계 전 대지 상황(상), 후(하)

54) Architectes per l'Arquitectura, <http://vimeo.com/38507615>,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터뷰에서 건물이 지역의 일상적인 공공공간으로서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rs Center는 기존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 덩어리를 포함하여 확장된 새로운 매스를 계획하면서 동시에 저층부의 전시 공간 계획에 따라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저층부의 계획에 따라 형성된 지형은 자연스러운 외부의 광장을 만들고 있다. 내부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외부공간을 공공에게 개방함으로써 사적인 영역은 지역의 공공공간으로서 다양한 이벤트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존에 넓은 가로로 비워져 있던 공간은 단순히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계단과 중앙의 광장으로 구체화되면서 최소한의 구획으로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재건축 전/ 가로와 연계된 외부공간 형성
출처: <http://www.treusch.at/>



[그림 5-11] 공적영역으로의 활용

Caixa Forum은 과거 전력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컨버전 하면서 지층부를 띄우는 계획을 통해 도시의 바닥을 연장하였다. 과거 도로에 면한 주유소가 전력소 건물을 막고 있어 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유소를 철거하고 본 건물을 위한 광장으로 개방하였다. 또한 건물 주변의 좁은 가로가 갖는 물리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거 건물의 저층부를 삭제하고 하부를 들어 올림으로써 새로운 도시의 바닥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롭게 형성된 전면지층공간에 의해 건물은 도로와 연속성을 가지며 전면의 마당과 더불어 주변 흐름의 거점이 되었다. 전형적인 근대의 폐쇄적인 건물은 지층공간을 가로로 내어줌으로써 다층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외부의 흐름을 흡수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그림 5-12] Caixa Forum 컨버전 전.후

도시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함으로써 건물은 도시의 바닥을 가르며 자리를 차지하

는 것이 아니라 대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영역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비어있는 도시의 공공공간에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잠재력을 생산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6. 결론

건축물은 도시로부터 경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 경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도시와 연속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도시와 건축의 공/사관계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될 수 없이 혼재된 상황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물리적 경계영역에서 나타나는 연결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외벽을 기준으로 외부의 영역을 매개공간으로 다루어 설명하던 전면공간의 논의가 또 다른 경계를 만들며 평면적인 접근에 그친다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경계를 내부공간에까지 확장하여 ‘전면지층공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였다. 전면지층공간에 대한 고민은 생활환경으로서 도시와 건축의 연결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으며, 현대 건축에서 건물이 환경의 독립적인 오브제로 고려되지 않고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환경⁵⁵⁾으로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 정의를 토대로 건축과 도시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전면지층공간의 사례를 투명한 경계, 다층적 경계,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가로와 내부공간 사이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층위에 따른 구분으로 가로-홀-내부, 가로-옥외공간-홀-내부, 가로-내부프로그램에 따른 옥외공간-홀-내부, 가로-옥외공간-외부성격에 따른 내부공간-내부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먼저 가로와 내부가 투명한 경계를 매개로 연결하는 경우 내부의 매개물에 의한 시선의 연결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에서의 활동이 투과되어 시각적 연결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한다. 또한 내부공간의 매개물이 외부공간을 모방하며 유사한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외부화 된 감각을 통해 내·외부가 매개될 수 있다.

다층적 경계구조를 갖는 경우는 내부와 외부가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 연속된

55) 장용순, Ibid, p224

Manuel Gausa는 이를 환경-건축의 개념으로 말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축을 다른 장들 사이의 장들로 묘사하고 건축과 대지를 구분하는 이분법의 일치를 주장한다.

흐름을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도시의 바닥을 내부로 끌어들이어 외부에 사용한 재료를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연속성을 갖는 방식, 내·외부의 공간구조가 교차되는 모호한 공간을 삽입하여 흐름을 연속하는 방식, 건물을 지하화함으로써 새로운 지하의 지면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와 건축의 물리적 경계를 상쇄시키는 방식이 있다.

프로그램에 의한 내·외부의 연결방식은 내부의 자체적 속성을 갖는 프로그램인지 외부의 속성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외부공간의, 후자는 내부공간의 구성을 통해 내·외부의 연속성을 꾀한다. 먼저, 오피스, 주거 등의 내밀한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에 공적인 속성을 갖는 외부적인 프로그램이 접합될 때 내부공간은 전면지층공간은 최대한으로 개방하면서 외부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외부로부터 연속적인 바닥을 수용하면서 보편적인 접근 가능성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 건물에서는 내부의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외부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내부의 중심공간에 따르는 형성원리로부터 통합적으로 내·외부를 구성함으로써 경계 없이 연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외부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속성과 연계하여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한 내·외부의 매개는 전면공간이 갖는 공적속성을 내부에까지 끌어들이며 가로에서 경험의 깊이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도시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고려한 내·외부의 연계는 기존의 공공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생활영역을 확장한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이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면지층공간은 도시와 건축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구성방식에 의해 형성되는데 두 속성이 겹쳐지는 중간영역이 내부로 확장됨에 따라 그 경계를 확장시키는 다양한 매개물에 의해 그 영역은 가변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른 내부공간의 활용에 따라 재조직되는 평면에 의해 중간영역의 확장범위는 재인식된다.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도시의 속성을 염두한 건축공간의 계획에 의해 통합적으로 구성될 때 전면지층공간은 가로와 구분되는 내부성을 갖는 공간이지만 유연한 공간으로서 도시공간에 성격을 부여하는 공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축사례에서 살펴본 전면지층공간의 구성방식은 일반적인 도시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건축과 도시의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

류는 역시 가로에서 발생하기는 하나 프로그램과 더불어 내부의 공간과 연속선상에서 지각되면서 확장된 도시공간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면지층공간에 대한 접근이 단일 건물을 넘어서 도시로 확장됨에 따라 도시와 건축의 경계가 서로 넘나들고 사람들의 다양한 점유를 통해 활성화됨으로써 진정한 도시공간에서의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 참고문헌

단행본

- Adrian Forty, 『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2009
- Alison Smithon, 이경찬 역, 『현대 도시 건축의 언어』, 태림문화사, 2008
- Bernard Tschumi, Architecture and Disjunction, 『건축과 해체』, 류호창 외 1인 역, Spacetime, 2003
- Christian Noberg Schulz, 이재훈 역, 『거주의 개념』, 태림문화사, 1991
- Edward Relph, The Modern Urban Landscape, 『근대도시경관』, 김동국 옮김, 태림문화사, 1999
- FOA, 『Phylogenesis_foa's ark』, ACTAR, 2003
- Herman Hertzberger,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수업』, 안진이 역, 효형출판, 2009
- Herman Hertzberger, 『Space and the Architect』, 010 Publishers, 2000
- Herman Hertzberger, 『Herman Hertzberger: 1959-1990』, a+u Publishing, 1991
- Jerold S. Kayden,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John Wiley & Sons, INC., 2000
- Jonathan Hill, 『Actions of architecture』, Routledge, 2003
- Le Corbusier, 『프레시지옹』, 정진국·이관석 역, 도서출판 동녘, 2004
- Lika & Angreas Ruby, 『Groundscapes』, GG, 2006
- Manuel Gausa 외 5인,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ACTAR, 2003
- Pierre von Meiss, 정인하 외 1인 공역, 『형태로부터 장소로』, spacetime
- Simon Sadler, 『The Situationist City』, The MIT Press, 1998
- Simon Unwin, 『Doorway』, Routledge, 2007

- Tom Avermaete, Klaske Havik, Hans Teerds, 『건축, 근대성과 공공영역에 대한 건축적 입장들』, 권영민 역, Spacetime, 2011
- Vincent Ligtelijn ed., 『Aldo Van Eyck Works』, Birkhäuser Publishers, 1999
- Vincent Scully, 『Modern Architecture and Other Essays』, 2005
- 고야마 히사오 저, 김광현 역, 『건축의장 12강』, 도서출판 국제, 2008
- 길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시공문화사, 2003
- 김성홍, 『길모퉁이의 건축』, 현암사, 2011
- 김성도, 『도시인간학』, 안그래픽스, 2014
- 리차드 세넷, 김홍식 역, 『장인』, 21세기 북스, 2010
- 봉일범, 『도시: 사건과 구조』, 시공문화사, 2002
- 봉일범, 『건축의 외연』, 시공문화사, 2002
- 이와사부로 코소, 서울리다리티역,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건축 예술 이민을 통한 움직이는 신체 뉴욕의 생성』, 갈무리, 2012
- 장용순,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 2. 은유와 생성』, 미메시스, 2011
- 장용순, 『현대건축의 철학적 모험 3. 용해와 내재성』, 미메시스, 2011

학위논문

- 정혜진, 현대 건축의 가로 내부화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윤정원, 흐름을 통해 도시의 건축화를 조직하는 체계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민진, 집합적 공간의 특성 및 건축적 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창균, 현대건축에서 유리 사용의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주현, 르 코르뷔지에 건축에서 건물과 대지의 분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 논문, 2013
- 신승수, 사용자 중심의 중층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10

연속 간행물 및 학회지

김광현, 『이상건축』, 2000

오광석 외, 알도 반 아이크 건축에서 “사이 영역”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8

新建築, 建築20世紀 Part.1,2, 1991

A+U, 2000:01-2014:10

Architecture NOW, vol.6(2009), Public(2010,2012), TASCHEN

Herzog & de Meuron, El croquis 60+84, 2000

Herzog & de Meuron, El croquis 129-130, 2000

Jean Nouvel, El croquis 65/66, 1998

Jean Nouvel, El croquis 112+113, 2002

OMA, El croquis 134/135, 2007

OASE71, Urban Formation and Collective Spaces, nai010 publishers, 2007

기타

<http://afasiaarq.blogspot.com>

<http://www.archdaily.com>

<http://www.architectural-review.com>

<http://www.dezeen.co.kr>

<http://www.mvrdv.nl>

<http://www.oma.eu>

<http://www.rex-ny.com>

<http://www.richardsennett.com>

ABSTRACT

A Study on the Elements and Connections of “Frontground space”

Advised by Prof. Kim, Kwang-Hyun

Lee, Heewon

Master Dissertation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s are formed by the process of creating a boundary from the city. Thus, ther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ity and buildings. Lower part of building is a boundary of the architecture and urban. Moreover, lower part will have the meaning such as it is the first physical boundary from city and it is the contact point as well. However, existing research about lower part usually considered as external space only not as the integration of street and lower part of the building. Thus, I believe that this kind of theory could make the limitation about frontage space. Therefore, I have defined a new term "Frontground space" in this study by extending the boundary from the outer wall to the inner space.

I analyzed the all the factors that could effect to frontground space by separating physical factor and non-physical factor. It includes the range that is already considered from existing study. Plus, I studied

about the connection method of internal and external space based on modern architecture cases since 2000. I will also discuss about the format of space element that is accepting properties of the city from the point of continuity space. Also, the program to accept many properties of city and performing this program are non-physical factor. Various Connections of foreground space appeared by physical boundaried weakened could be categorized connections of transparent, multi-layered boundary and programs based on these factors.

Foreground space can be created by many formats creating the continuity between building and city. As overlapped point of building and city is expanded into the inside, it can be variable by many mediums. Above all, Applications of inner space re-organize the plan by program as a mechanism of space.

To make the inner space and external space meet, integrated plan for architecture space needs to be considering about the city' s properties. Therefore, foreground space can be defined as the space that has internalities and also can be defined as flexible public area.

As approaching way to foreground space is expanded to city not only the building, boundary of city and building will be collapsed. Also, building will be activated by people' s various occupations so that people could have true urban life at the city.

Key words : Front space, Ground space, Foreground space, Connection, Urban-Architecture

Student Number : 2013-20571